



[노정 강대강 격화일로] 탈출구 안보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공장 문 닫을 판 05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79.84 (+7.31)	코스닥	740.60 (+11.06)
금리 (미국 3년)	3.650 (-0.039)	환율 (원-달러)	1299.70 (-19.10) (1일)

m-커버스토리

脫통신 바쁜 이통사 초거대 AI 선점경쟁

미래 먹거리는 AI

5G 서비스 보편화로 정체가 통신사업 융합 신사업 승부

SKT 'AI컴퍼니' 도약 방점 KT 'AI 디지코' 기업 변신 LGU+ AI브랜드 익시 출시

이상 성장한 4500억 달러(약 608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사들은 최근 초거대 AI를 시장에 속속 출시하고 있다. 초거대 AI는 딥러닝 기법을 쓰는 인공지능경망 중에서도 파라미터(매개변수)가 무수히 많은 AI를 가리킨다. 이통3사는 초거대 AI를 핵심 서비스에 접목시키며 서비스의 경쟁력을 쑥 끌어올리고 있다.

◆에이닷 킬러 서비스

유영상 SKT 대표는 AI 컴퍼니 비전을 SKT만의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 5대 사업군을 3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어비즈(Core Biz.)를 AI로 재정의하고 ▲AI 서비스로 고객 관계를 혁신하며 ▲AIX(AI+디지털전환)로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공개했다.

SKT는 우선 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MNO'를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품 탐색부터 가입, 이용까지 전 과정을 막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IPTV·채널·T커머스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자산을 통합할 뿐 아니라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업 자체를 고객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AI 엔터프라이즈'로 재정의해 나갈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철도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탑승할 열차로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뉴스1

파월 발언에 韓 금리 3.5% 마무리 기대

美 기준금리 속도조절 시사 내년까지 인상은 이어질 듯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출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 기준금리가 3.5% 안팎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품 파월 미국 Fed 의장은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12월부터는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다. 앞서 미국 Fed는 올해 0.25%이던

기준금리를 3월 0.5%로, 5월 1%로 각각 0.25%p, 0.5%p인상한 데 이어 6월, 7월, 9월, 11월 0.75%p 인상해 4%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로 전환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경제위기 속 '선택과 집중'... 투자·전략通 전진배치

SK그룹 조직개편·인사단행

SK그룹이 2023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1일 단행했다. SK그룹은 내년까지 이어질 대내외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 및 전략 전문가를 계열사 수장으로 전진배치하고 기존 원로 임

원들은 지주사로 집결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4면> SK그룹내 최고 의사 협의기구인 SK수펙스협의회는 조대식 의장이 4년 임했다. 사장단 인사에는 박성하 SK C&C 사장이 SK스퀘어 신임대표로 선임됐다. 윤풍영 SK스퀘어 최고투자 책임

자는 SK C&C 대표로 옮겼다. 박 대표와 윤 대표는 하이닉스 인수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영상 CEO체제를 유지한다. 유 CEO는 SK브로드밴드 대표도 겸직한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729만 중소기업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개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환영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연대 소속 운송거부자들은 조속히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11월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 현장이 섰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은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제품 납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가 모인 단체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불법이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책임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 국가 경제를 불모로 삼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업종의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2022. 12. 2.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 김기문

- | | | | | |
|---------------------|-----------------------|------------------------|------------------|-----------------------|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배조웅 |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동우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
| 벤처기업협회 회장 강삼권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최봉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찬 |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분희 | 이노비즈협회 회장 임병훈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석용찬 |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원재철 |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박현주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 |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석 |

반도체 등 육성에 3.7조...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 편성

2023 쟁점예산

⑩ 윤석열표 '역동적 경제' <골>

기재부, 내년 예산안 639조 편성
전년비 5.2% ↑, 2차추경비 6% ↓
R&D고도화 6조, 탄소중립에 8.9조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 2.6만명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가 잘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국회가 확정하는 '계획표' 즉, 예산이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초를 건정 재정으로 전환하고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0%가 줄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 편성됐다. 정부안대로라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3조7000억원 ▲연구개발(R&D) 고도화에 6조원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에 8조9000억원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에 5조6000억원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4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해 약 1조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한국의 상황을 극복하고 초격차를 이뤄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제 때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재직

자 및 취업준비자 대상 단기 인력양성 사업이 다수 사업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교육내용 및 대상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약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에 서명하는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 반면, 대한민국 국회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규제를 완화한 일명 'K-칩스'법이 발의됐는 데도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핵심전략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지원에 4조5000억원을 책정한 반면, 주목할 만한 분야(미래에너지, 난치병 치료 기술,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이퍼루프,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 지원엔 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금 당장 혹은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예산이 흘러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군다나 예산안법정시한(2일)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는 느긋한 모습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 중 과행을 겪는 상임위도 곳곳에서 나왔으며, 정부안을 관찰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은 여전히 팽팽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준예산, 민주당은 단독 삭감한 수정안 채택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조유의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이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2023년도 예산 총괄 분석 발간사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수장 줄줄이 임기만료... 지방금융지주, 세대교체 바람 분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장 후보에 백종일 프놈펜상업은행장 내정
광주은행장 단독후보에 고병일

BNK금융지주 회장선임 돌입
내부 후보군 9명에 외부 추천도

DGB금융 대구은행장 임기 만료
후보군 7명 중 현 행장 연임 가능성

지방금융지주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 연말부터 지방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 얼굴이 속속 등장하는 분위기다.

JB금융지주는 최근 핵심계열사인 전북·광주은행의 수장을 한 번에 교체했다.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다. 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 부산·경남은행장의 임기도 곧 만료돼 모든 CEO가 바뀔 전망이다. DGB금융지주도 차기 행장 선임절차에 돌입했다.



JB금융지주 본사.



BNK금융 본사.



DGB금융 본사.

◆ JB금융, 전북·광주은행장 교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새 전북은행장 후보로 백종일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을 내정했다. 광주은행장으로는 고병일 현 광주은행 부행장을 단독후보로 올렸다.

전북은행의 수장으로 내정된 백종일 행장은 1962년생, 광주은행을 이끌어갈

고병일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사실상 세대교체가 시작된 셈이다.

전북은행장과 광주은행장으로 내정된 백 행장과 고 부행장은 내부 인사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 백 행장은 외부출신으로 뒤늦게 전북은행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변화에 중점을 뒀다. 반면,

고 부행장은 광주은행에 입행해 32년간 근속해 안정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돌입

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에 돌입했다. 여기에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최홍영 경남은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 만료된다. 차기 회장이 결정되면 자리를 비워야 한다.

최근 BNK금융지주는 임추위를 열고 CEO 경영승계 절차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임추위는 BNK금융 계열사 대표인 내부 후보군 9명 이외에 외부 자문 기관 2개 업체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 후보군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외부 출신의 회장 선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외부 출신이 그룹 수장이 되면 두 행장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전망이다. 새 지주 회장이 임명될 경우 인적 쇄신을 위해 계열사 수장부터 교체했기 때문이다.

BNK금융 내부에선 외부 인물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 대구은행장 후보 7명 확정

DGB금융그룹도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 돌입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이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임행장은 2020년 9월 선임된 후 오는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DGB대구은행의 차기 은행장 후보는 7명으로 추려졌다. 후보 중에는 현직인 임성훈 행장과 DGB금융지주사 전무급 2명, 대구은행 부행장보급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임추위는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최종후보자가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의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연내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업계에선 임 행장의 연임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임 행장이 대구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올 3분기 대구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임기는 1년 추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 12.7만명 증가 '노동시장 안정'

>> 1면 '파월 발언에 韓 금리'서 계속

노동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부문 고용은 12만7000명 증가해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7.7% 상승해 시장 전망치였던 7.8%를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한 번 둔

화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하락으로 보면 안된다"며 "내년에는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최종금리가 더 높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3.5%에서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 대비 19.8원 내린 1299원이다.

높은 환율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통화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최종금리는 3.5%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라이프사이언스 사장에 이동훈 선임

>> 1면 'SK그룹 조직개편·인사'서 계속

SK바이오팜은 이동훈(SK㈜)바이오 투자센터장을 SK바이오팜 및 미국 자회사인 SK 라이프사이언스의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SK E&S는 추형욱 사장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투자전문회사 SK(㈜)는 이성형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사

장으로 끌어올리며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SK관계자는 "2023년은 '경영시스템 2.0'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재무성과를 비롯해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유무형 자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변화보다 '안정' 택한 SK... CEO·부회장단 대부분 유임



하이닉스·E&S 등 부회장 유임
수펙스협의회 조대식 의장 4연임
C&C-스퀘어 대표는 '트레이드'
SK텔레콤, 유영상 CEO체제 유지

올해 국내 재계 2위로 올라선 SK그룹이 1일 2023년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SK그룹의 이번 인사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영환경속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그룹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K주력 계열사 CEO들과 부회장은 대부분 유임됐고 신입 투자전문가들을 선임했다. 또 신입 ESG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선임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부회장이 유임됐다. 특히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SK수펙스협의회 조대식 의장이 4연임 확정되면서 재계 이목을 끌었다.

앞서 부회장단과 조의장은 그룹의 혁신을 이끈 주역들로 내년에도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할 리더십을 발휘할 전망이다.

또 이번 SK그룹의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장단 인사다. SK C&C와 SK스퀘어의 대표가 트레이드됐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SK스퀘어 대표로 선임됐다. 해당 공석은 윤풍영 SK스퀘어 최고투자책임자가 채웠다. 이로써 박성하 SK스퀘어 대표, 윤풍영 SK C&C 대표가 내년부터 각 계열사를 책임진다.

두 대표 모두 새롭게 자리한 대표직이 어색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표는 SK스퀘어의 기타비상무 이사를 겸임한 바 있고 윤 대표는 박 대표와 하이닉스 인수 작업에서 호흡을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박성하
SK스퀘어 사장



윤풍영
SK㈜ C&C 사장

맞춰본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대표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혁신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심의위원회'를 상설 조직화해 포트폴리오 전략 실행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과 솔루션 등 디지털 애셋 기반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대고객 서비스 및 사업 수행 품질 혁신이 목표다.

SK텔레콤은 유영상 CEO체제를 유지한다. 유 대표는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대표도 겸직한다. 이에 유 대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시너지 창출에 나설 전망이다.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사업 영역과 함께 브랜드, 기업문화 등 전방위 영역에서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CEO는 "SKT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최적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조직 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투자 전문가인 이호정 경영지원본부장을 새로운 총괄사장으로 선임하고, 미국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며 글로벌 투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이 신입 총괄 사장과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해온 최성환 사업 총괄을

사장으로 승진 인사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경영진을 대부분 유임한 가운데, 조직 개편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며 반도체 '다운턴'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새로운 임원으로 대거 불러들이며 미래 준비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SK의 에너지 계열 기업들의 사장 인사는 '카본 투 그린'에 방점을 맞춘 인사로 진행됐다. 친환경 전략 이행을 위한 사업자회사들의 별도 조직 신설이 눈에 띄긴 했지만, 인사 부문은 대부분의 수장들을 유임시키며 '조직 안정'에 집중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부회장단도 대부분 유임됐다. 중간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는 신입 사장에 전광현 SK케미칼 사장을 선임했다. 기존 안재현 SK디스커버리 사장은 SK케미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가스는 3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는데 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이동훈 SK㈜ 바이오투자센터장은 SK바이오팜 대표에 임명됐다. 투자전문회사 SK㈜에서는 이성형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사장으로 승진했다. CFO 역할을 강화해 CEO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신규 임원 10명을 선임했으며 바이오 투자센터와 그린 투자센터, 디지털 투자센터, 재무 부문 등에서 신규 임원을 배출했다.

SK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멤버사의 성장 스토리 실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멤버사 간 글로벌 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의 이번 인사가 현재와 내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 녹록치 않은 경영상황과 경기 침체 장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기업 내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유임하면서 경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K의 인사를 살펴 보면 내년에는 ESG와 투자 관련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박정호·곽노정·노종원 체제 유지

SK하이닉스, 인사 폭 최소화
미래전략 산하 '글로벌전략 조직' 신설
CEO 산하에 '글로벌 오퍼레이션 TF'

글로벌 반도체 위기 속, SK하이닉스는 인사 폭을 최소화하며 안정을 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부장 계열사들도 그룹내에서 힘을 키우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전망이다.

경영진은 올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박정호 부회장과 곽노정 사장, 노종원 사장 등 3인 체제. 기존 경영진에 책임을 맡겨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묘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주요 조직을 대거 개편하며 안주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글로벌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포부다.

우선 미래전략 산하에 글로벌전략 조직을 새로 신설하며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 정세를 분석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CEO 산하에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TF를 구성하고 글로벌 생산시설과 지역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D램 개발을 주도해온 미래기술연구원 차선용 담당에 TF장 겸직을 맡겼다. 최근 D램 생산량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는 등 이슈가 이어졌던 만큼,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실트론은 경영진 유임 뿐 아니라 장용호 사장이 수펙스추진협의회 환경사업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며 그룹내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김재용 기자 juk@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AI 컴퍼니... 한국형 AI 반도체 개발... 친구같은 AI 플랫폼

(SKT)

(KT)

(LG유플러스)

>> 1면 '脫통신 바쁜 이통사'서 계속

이통사 수장, 제각각 AI 청사진
SKT, 사피온 앞세워 시장 공략
KT, 한국형 AI반도체 폴스택 목표
LGU+, 소상공인 위한 AI 서비스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SKT 관계자는 “초거대 AI를 성장형 AI 서비스인 ‘에이닷’에 적용했다. GP T-3를 대화에 적합한 모델로 튜닝해 적용하고 있다. 감성형, 인포형, 태스크형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닷 서비스에서 고객 사용을 늘리기 위해 킬러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SKT는 또 지난 1월 자사의 AI 반도체 사업부인 ‘사피온’을 분사시켰다. 사피온은 2020년 4월 연구개발 테스트 용도로 AI 반도체를 개발한 이후 같은 해

11월에 ‘사피온 X220’을 상용 제품으로 내놓았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추론 서비스 반도체 시장과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거대 AI가 답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AI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KT의 3대 발전 전략으로 ▲초거대 AI 상용화 ▲AI 인프라 혁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꼽았다. 구 대표는 “초거대 AI는 성능, 확장성,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 기존 AI에서 더 나아가 범용성, 맞춤형, 창의적 학습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어느 기업든 KT의 초거대 AI를 활용하도록 해 핵심 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는 AI 기술로 화물차량에 최

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물류센터에도 직원 동선을 설계해주는 물류 플랫폼을 선보였는데, AI 물류 서비스 분야에 2025년까지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또 한국형 AI 반도체를 개발해 외산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AI 생태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설계업체인 리벨리온,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모레 등 AI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또 AI 원팀을 통해 카이스트, 한양대, ETRI 등과 AI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기존 대비 3배나 효율을 높인 한국형 AI 반도체 폴스택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AI는 모든 서비스의 기본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I 통합 브랜드 ‘익시’를 선보여 고객에게 더 가

이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익시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친구 같은 AI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통신사에서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U+3.0’ 비전을 공개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I 기술을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며 “LG유플러스도 경쟁사에 못지 않게 AI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AI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G그룹에서 개발한 초거대 AI인 ‘엑사원’을 AICC(인공지능 컨택센터) 등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 소상공인을 위한 콜봇 서비스 ‘우리가게 AI’를 출시해 AI가 사람을 대신해 매장 정보 제공, 예약 등 응대를 돕는다는 전략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디지코 전환 성과’ 구현모 KT 대표, 연임 ‘무계’

사업·실적 등 괄목할 만한 성과
이사회 내부 친노·친문인사 변수

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대한 긍정론이 우세하다. 다만 KT 이사회 내부에 ‘친노·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구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 임명되기 전 일이다. 구 대표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다. KT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표이사 자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친노·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진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KT는 그동안 정치 권력 교체가 대표 선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KT가 민영화가 된

후 연임을 마친 대표는 황창규 전 회장이 유일하다.

KT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구 대표를 차기 대표 선출과 관련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관에 따라 구 대표의 연임 우선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안에는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이고, 이 위원회에서 구 대표가 적격자로 판단되면 이사회의 결정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윤경림 그룹트렌스포메이션부장과 사외이사 8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 대표의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

는 이유는 그가 지난 2020년 10월 통신 기업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인 ‘디지코’로의 변화를 선언한 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ABC 사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과 B2B 산업을 주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현재 이 사안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 매출, 기업가치 등 수치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략 발표 후 2년이 지난 현재 KT는 통신 3사 중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며, 디지코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선, 인터넷, 기업회선 등 기존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내면서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IDC, 기업메시징 등 B2B 및 디지코 사업이 성장을 본격화했다. 지난 2019년 14조 원 수준이었던 서비스 매출은 디지코로 확장된 이후 2020년 15조원을 돌파했다. KT 역사상 가장 큰 서비스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 가이벤트를 추진하면서 실적과 주가를 끌어 올린 것은 사실이다”며 “연임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연임이 불가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라는 분석이 더 많다.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4년 5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강’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정권 교체가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구 대표는 어느 정치권에도 포함되지 않고 34년간 KT에서 쫓 성장한 인물로 정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구 대표는 민간 기업의 대표이고 연임은 정권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에서는 새 인물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T 이사회에는 친노·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양측이 불협화음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구 대표도 이사회 멤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다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현 정권에서 KT 대표 자리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채윤정 기자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2-1202-001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222호(2022.06.28.)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C구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의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
※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기반시설 ©구역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비고
© 구역	백마고 하부 도로개설	-사업면적: 4,360.4㎡ ※ 도로개설: B=27.8m, L=158.79m	대로1-15호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로 29-37, 406호
- 다. 조합장: 김재관

○ 보상계획

- 가. 보상대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92 일원 소재 토지 및 물건 등

구분	소재지
토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054, 1056, 1061, 514-1, 1062, 514-2, 514-3, 1064, 1197-1, 1066, 1220, 1065, 1204, 518-2, 1052, 1053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토지·물건조사 등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고양시청 제2별관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토지·물건조사 등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미등기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등 포함)에게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향후 기본조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분할축량, 사업지구 경계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익지분 및 편익인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면적,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 2023년 2월 이후 예정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 진행 등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及以上的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명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협의 등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별 손실보상액의 요청을 발송하고, 개별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액 등에 합의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계약서 작성, 날인 등 절차에 의거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보상금의 지급은 보상협의계약 체결 관련 구비서류 등을 검토 후 출금이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현금보상) 처리됩니다.

○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2022.12.02(금) ~ 2022.12.23(금)
- 나. 열람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장로102번길 48 (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2층 도시정비과 ☎ 031-8075-3162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9-37 (풍동, 서광미래프라자) 406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 031-907-7711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방문하시면 보상계획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열람방법
-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인여부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2022.12.23.까지 도착)으로 제출하시어 하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 가. 물건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소유자가 상이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물건조사 내용대로 보상 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입니다.
- 다.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 시행으로 원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전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하락까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전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상기 손실보상계획은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여건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열람 안내로 대신합니다.
- 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031-907-7711 또는 보상담당자(김종훈 과장, 010-5327-5559)에게 연락 바랍니다.
- 사.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통지 또는 열람장소에 게시되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031-907-7711 또는 보상담당자(김종훈 과장, 010-5327-5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2.02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탈출구 안 보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공장 문 닫을 판”

산업계 일부 생산설비 중단 움직임
주요 업종 출하 차질 규모 1.6조
철강업계, 태풍 이후 어려움 가중



공공운수노조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책임 강화, 국민안전 실현, 민영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성 및 노동권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약 일주일간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는 밝혔다. 산업부는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는 막대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철강업계로 집계됐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하루 10만톤 가량의 철강재

를 출하하지 못하면서 업계 누적 손실액은 1조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29일까지 제품 총 60만톤을 출하하지 못해 약 7800억 원의 매출 이연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이는 톤당 평균 가격 130만원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집계된 만큼 1일까지 단순 계산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진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도 철강업계는 파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규모 1위를 기록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은 8일 동안 72만 1000톤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피해액만 1조 1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가 지난 9월 태풍 상륙 이후 수해를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나 경영 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석유화학업계도 이번 주부터 출하 차질이 본격화했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

리(유조차)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품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하는 상황이다. 약 4000억원대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최소 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고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구 차수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금역환산 976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자동차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로드 탁송’(완성차를 직원이 직접 운송하는 방식) 등 인건비와 운영비추가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하루 5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타이어업계는 공장 섯다운도 검토하고 있다. 타이어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공장 내에 재고 물량을 쌓아두고 있지

만 적재공간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금산공장은 하루 타이어 생산량 10만본 중 입출고가 평상시 대비 30%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공장 내 재고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날 입출고는 컨테이너 30여 대 수준으로 평소 80여 대 분량 대비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한국타이어는 국내 2개 공장 외에 중국,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생산기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수출 타격은 미미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원·부재료 재고가 바닥나면서 일부라인은 이날부터 6일까지 타이어 생산을 줄인다. 이날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하루 생산량 8만본 중 최대 30% 수준까지 감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넥센타이어 역시 양산과 창녕공장에서 생산되는 하루 8만본 물량에서 4만본 수준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상황에 따라 감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수출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년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정유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노동계 6일 총파업 ‘맞대응’

전국 유류 품질 주유소 20곳 넘어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압박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자 노동계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2일부터는 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정 관계는 극도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들여다보

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에 이어 유류제품 수송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국에 유류가 품질된 주유소도 20곳 넘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여부를 파악해 대응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군용 탱크로리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 품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정유 업종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협상도 결렬되면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 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과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현장 복구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당장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대안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나서 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세송=원승일 기자 won@

중소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법 집행”

중기중앙회,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부총리 “예산개편안 기한 통과 당부”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정 기한(2일)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

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검색에 따른 한시적 산기보 보증한도 확대 ▲시설자금 차입금 분할상환금 탄력적 운용 ▲공공 조달시장 납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추경호 부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구리 스크랩 유통 양성화 위한 소독세 원천징수 ▲MAS2단계경쟁 적용기준 상향 ▲해외판로지원사업 부가세 면제조항 신설 등 8건의 현장건의를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관세 간이 정액환급대상 범위 확대 ▲스마트공장 예산 증액 ▲TRQ 물량조정 및 할당관

세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연장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공공조달분야 제값받기 환경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상생협력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연금 지정기부금 인정 등 10건의 서면건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국회에 내년 예산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면서 “이런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정부 조직개편 나선 여야, 첫날부터 여가부 폐지 놓고 대립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 열어
여가부 존폐·이름 변경 등 대립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대두
입장차만 확인, 다음주 다시 협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관한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협의체 킷오프(시합 시작 또는 재개를 뜻하는 축구 용어) 미팅을 개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양당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다음 주 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의 3+3 정책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와 일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해 올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비교적 양당 입장이 서로 어느 정도 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킷오프 미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뉴스시스

“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 앞서 발표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음 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협의하기로 했다. 더 이상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거나 확대개편하는 등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안 됐다. 아마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의 입장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여당의

정부조직법은 폐기라고 봐도 되나’는 질문에 “협의한 내용이 장차 정부조직법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좀 아쉬움이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 정부 출범 초기에 해야 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난 정부조직법 협의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장관이 폐지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며 “여가부와 관련해 저희 당이 밝힌 입장으로 여전히 해야 할 일 있다. 여전히 여성들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

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현 상황이기에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 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대해 공감했으나, 표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을 알박기라고 표현되는데 알박기가 아니고 현 제도에 대해 법을 지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지금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尹, ‘성탄절 전후 특사’ 추진… MB 등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국민대통합 차원 정치인 포함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관련해 실무 검토에 들어가 검토안을 이달 중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에서는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조상수 전 민주노동당 총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이 언급됐으나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대상에서 제외하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년 사면에서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지난 6월에도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36년 만기 출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나이는 95세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도 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2023년 5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내년 5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의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정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문재건에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계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도 커 ‘야당 분열을 부추겼다’는 정치적인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박정익 기자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5일 韓-베트남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6
일간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
이 국빈 방한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폭 주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폭 주석은 5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회담, 정상회담, 국민만찬 등의 공식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폭 주석과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교역·투자·금융·인프라·공급망 등 경제 분야,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베트남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폭 주석의 국빈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폭 주석은 또한 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폭 주석은 방한에 맞춰 6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주최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박정익 기자

국회 예산안 처리 오늘까지인데…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

여야, 본회의 개의 두고 평행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2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박홍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의 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구했다. 본회의를 열면 중요 현안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도 안 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잡아둔 것인데, 소위 59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올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법사위에

서 국민의힘 간사가 심사 의결을 위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도 주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국회 절차법에 의해 특위안을 상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 본회의 안건 없이도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합의된대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바꾸는 K-BAB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이~만큼 말고 요~만큼만! 요리해요

너무 많이 요리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많아지면
지구가 점점 아파진대요
엄마, 우리 이제 먹을 만큼만 요리해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지구의 건강도 지키고 1년에 약 2조 6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1. 가족 수에 맞춰 계획하기
2. 소량으로 장보기
3. 계량컵 등을 사용하여 정량 지키기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15.7% 줄일 시,
연간 가계 절감 비용 2조 5백억 원을 20%로 환산
출처 : 환경부(2012)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당국 금리단속에 예대금리차 ‘역대급’… 소비자 부담 가중

3분기 말 예대금리차 2.46%p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레고랜드발 대출금리 5% 돌파
예금금리는 정부 인상자제 권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반면, 대출 금리 인상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여파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2.4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2분기 2.49%p 이후 8년여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가 4.7%라고 표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대출금리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연 5%를 넘어섰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5.34%로 한달 사이 0.19%p 뛰었다. 이는 2012년(5.38%)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대출 금리도 5.27%로 지난 9월보다 0.61%p 뛰었다. 2012년(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1998년 1월(2.46%p)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12년만에 7%를 돌파했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이며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가장 높다.

이와 달리 지난달 5%를 돌파했던 예금금리 상품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 업권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5% 예금 상품을 선보인 우리은행의 ‘원(WON) 플러스 예금’은 현재 4.9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하루 만에 4.98%로 떨어진 이후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상품인 ‘KBSTAR 정기예금’도 4%선으로 밀려났다. 지난 14일 연 5%대에 올라섰으나 전날 기준 연 4.7%로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예금’도 기본 금리만 연 5.1%였지만 현재는 ‘기본금리 연 4.8%, 우대금리 0.3%p’로 인하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에 나서는 것은 수신상품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확대에 이어져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자금 조달 경쟁

이 심화하면서 수신금리를 잇달아 높이자 시장 자금이 은행으로 몰렸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예적금 이자는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만 계속 오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예금이자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만 더 된다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입은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만 더 뛰어오르게 만들어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 있다”면서 “대출이자만 높아진다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동성 확보하라… 저축은행 이어 보험사도 금리 6% 육박

2금융권도 수신 경쟁 치열
생보사 5%대 저축성보험 출시
원금 손실에 유의해 계약 해야

자금 확보를 위한 2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치열하다.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사 또한 저축성 보험에 연 6%에 가까운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금리가 연 6%대에 근접 중이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달 6.5%까지 치솟았다. 금융권에선 연 6%대 정기 예금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모처럼 맞이한 ‘금리 전성시대’에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저축성 보험 중 적합한 상품 선택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전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5.53%다. 1년물 기준 상상인

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회전정기예금’과 ‘회전E-정기예금’이 연 6.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CK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OSB저축은행의 ‘인터넷 OSB 회전식 정기예금’ 등이 연 6%의 금리를 적용했다.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연 6%대 정기 예금 등장 이후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 또한 등장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도 2%선을 유지하던 저축성 보험의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푸본현대생명이다. 연 5.9%(5년물)의 금리를 적용한다. 출시 후 3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며 자금 흡수에 나서자 생보업계 또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교보생명은 연 5.8%의 금리를 적용한 저축성 보험을 출시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저축’과 ‘보

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상해와 질병에 관한 보장은 물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예금 수령 시 부과하는 이자소득세도 면제 받는다. 중·장년에 접어들기 전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저축성 보험 또한 고려 항목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통상 5년 납입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기 예금보다 납입 기간이 길다. 또한 계약사항에 따라서는 중도 해지 시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생애주기마다 다르지만 대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정기 예금과 저축성 보험에 분산 저축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공무원 등 안정성

이 높은 직업이라면 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기 예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금융권의 금리인상은 각 사별 건전성과 여력에 따라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을 향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쓴소리는 은행권이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있어 2금융권의 부실을 우려해서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기조는 여전하다. 당국의 유의 사항을 지키면서 최대한 소비자 편의를 늘리려고 한다”며 “비대면 정기 예금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 생활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삼 기자 kimsan119@



우리금융그룹은 재단법인 티앤씨재단과 함께 푸드트럭으로 결식위기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우리금융

우리금융-티앤씨재단 푸드트럭 활용 사회공헌 활동

우리금융그룹은 재단법인 티앤씨재단과 함께 푸드트럭을 활용해 결식아동들을 찾아가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은 취약계층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푸드트럭을 이용해 보육원,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식사와 간식은 물론 레크리에이션까지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번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 약 22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해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게임도 함께하며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락과 반찬을 지역 상인들을 통해 구매하고 상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간식 조리를 담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보석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강신숙 號 수협은행, 신임 사외이사 4명 선임

제 6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강신숙 Sh수협은행장과 함께 합을 맞춰 은행을 이끌어 갈 사외이사가 정해졌다.

Sh수협은행은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2년도 제6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에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는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등 네 명이다.

오규택 신임 사외이사는 연세대 경제



(왼쪽부터)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Sh수협은행

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와 영국 버밍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역임했다.

남봉현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과 미

국미주리주립대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중앙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인천항만공사 사장직을 수행했다.

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미국 템플대

에서 보험경영·보험계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형림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 정책고문과 동아대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신임 사외이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삼 기자 kimsan119@

항공업계, 수요 늘었지만 中 노선 없이는 ‘반쪽짜리 회복’

무비자 입국 日 여객 수요에 동남아 여행 등 겨울관광 급증

中 입출국 방역 완화 없이는 국제선 회복 기대할 수 없어

팬데믹 방역 완화와 무비자 관광 수요 증가로 겨울 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 실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객 회복세에도 코로나19 이전만큼의 수요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 국내 항공사들의 근심이 깊다. ‘중국 노선 활성화’ 없이는 ‘항공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중론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객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동남아 여행 선호 분위기로 4분기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실시간통계에 의하면 11월 국제선



북적이는 일본 도쿄 시내의 모습 / 독자제공

항공 여객 수는 308만1338명으로 집계됐다. 10월 252만2903명보다 22.1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중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10만1404명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일일 여객 1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 여객수(696만4045명)의 약 45%에 이른다.

특히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한 여객 수는 무비자 입국 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해 겨울 일본 여행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일본의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252만여명이 지난 10월에 일본을 찾았고, 11월에도 300만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겨울 일본 여행 성수기’ 바람을 타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증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의 현지 인력 부족이 증편 제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일본 수요가 더 있을 걸로 보여 증편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지 상황 때문에 인기 도시 위주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도시는 물론 소도시 쪽으로도 증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어부산은 지난 30일 오전 부산에서 삿포로로 운항하는 BX182편 운항을 시작으로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 재개에 나섰다. 이날 운항편의 탑승객은 162명으로 83%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장기간 운항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탑승률을 기록한 것은 본격적인 일본 여행 재개와 삿포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산~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3회 운항하고, 8일부터는 매일 왕복 4회로 운항 횟수를 늘린다. 또한 9일부터 부산~나리타 노선은 매일 왕복 1회로 재운항에 나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인천~오키나와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코로나19로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한지 2년 9개월여만이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일본 노선 증편으로 탑승률이 높아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나리타 노선 탑승률은 지난 9월 58%였는데, 11월에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일본 노선 주간 운항률은 37.1%(2019년 11월 28일~12월 4일 기준)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당시 143편이 운항했다면, 지금은 53편이 운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객 수요 회복은 이어질 것 같다”며 “다만, 중국이 입출국 방역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국제선 노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그룹, 英서 ‘올해의 車회사·인기車’

탐기어 어워즈서 2개부문 수상 ‘기아’, ‘N 비전 74’ 각각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탐기어 주판 ‘2022 탐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인기 차’와 ‘올해의 자동차회사’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BBC 탐기어 매거진은 현대자동차의 N 비전 74를 올해의 인기 차로, 기아를 올해의 자동차회사로 선정했다.

N 비전 74가 수상한 ‘올해의 인기 차’는 과감한 기술적 혁신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많은 인기를 얻은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탐기어는 “N 비전 74를 통해 현대차



현대자동차 N의 N 비전 74 / 현대차그룹

의 과거 디자인과 미래 고성능차 개발에 대한 추진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현대차가 N 비전 74를 통해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N 비전 74는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움직이는 연구소) 모델이다. 롤링랩

이란 레이싱 모델용 고성능 기술을 대중 모델에 적용하기 전 검증하는 단계에서 제작하는 중간 단계 모델이다. N 비전 74는 1974년 포니 쿠퍼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으며 배터리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최고출력 500kW, 최대토크 900Nm, 최고시속 250km, 1회 충전시 주행 거리 600km 등 서로 다른 두 개의 동력원이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올해의 자동차회사로 선정된 기아는 유럽에서 EV6 GT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모델을 출시하며 성공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IPTV에도 HDR10+ 확대 적용

KT 신규 셋톱박스에 도입 애플TV 4K·앱에서도 지원

IPTV와 게임도 HDR 10+를 속속 채용하며 고화질 영상 표준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KT와 엔비디아, 아마존 등에 HDR10+를 제공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HDR10+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고화질 영상 표준 기술이다.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이고 정확한 색 표현을 지원한다. 올 초 CES2022에서 HDR10+ 게이밍 전용 규격을 발표하고 올해 출시한 TV와 모니터에 적용한 바 있다.

먼저 KT는 내년에도 새로 도입하는 신규 셋톱박스에 HDR10+를 적용한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애플TV 4K와 삼성전자 TV에 내장한 애플TV 앱에서도 HDR10+를 지원하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

LS전선아시아 베트남 호찌민시에 UTP 설비증설 완료

LS전선아시아가 랜 케이블(UTP)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UTP 설비 증설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 UTP 설비에는 68억원이 투자돼 생산량을 15%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된 1기가급 케이블 설비를 축소하는 대신 10기가급을 확충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늘렸다.

UTP 케이블은 짧은 거리 통신망 연결에 쓰이며, 미주 지역이 전세계 수요 4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미국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정보화 진행 등으로 LS전선아시아도 생산량 80% 이상을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 증가 등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juk@

최정우 회장, 호주서 친환경 미래사업 논의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친환경 미래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최 회장이 앨버니지 총리에게 포스코그룹의 호주 사업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지난 달 30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3차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한국 측 위원장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포스코그룹은 철강 생산시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는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에 필수적인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호주를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 국가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존 철강 원료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그린스틸

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의 투자 분야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그룹은 태양광, 풍력 등 경쟁력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철광석을 가공한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를 적용하여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Slab) 생산까지 확대하고,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는 암모니아로 제조하여 전세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그룹은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전해 등 수소생산 분야에 280억 달러, 그린스틸 분야에 120억 달러 등 총 400억 달러(약 52조 원)를 204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학교 가는 ‘LG 클로이’ 디지털 교육 지원

LG전자 경북 수십여개 학교에 공급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기능 등 갖춰

LG 클로이 로봇이 학교 교육까지 지원한다.

LG전자는 경상북도 수십여개 학교에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공급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클로이가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 공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0월 경북 구미시 사곡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공급 중이다.

학교에 공급하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제품 앞뒤 27형 터치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는 자율주행 기능 등을 갖췄다.

주로 디지털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로봇을 제어하는 앱을 만들어 로봇을 구동하거나 로봇 홈 화면을 원하는 대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래밍 결과물은 콘텐츠 관리자 사이트에 올려 로봇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를 로봇 디스플레이에 상영하는



경북 구미시 사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체험하고 있다.

등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장 인사말, 우수학교 연혁, 공지사항 및 주간 식단표 안내 등 각종 콘텐츠를 탑재해 방문객과 구성원에게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LG전자는 로봇 공급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관련 콘텐츠 및 기능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美 금리인상 속도조절 소식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코스피 7.17p 올라 2479.99 마감
코스닥 지수도 11.73p 오른 741.34
“파월 연설에 주식시장 혼풍 작용”

제품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둘기파적 발언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가운데 국내 증시도 화답하면서 장을 마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17포인트(0.30%) 오른 2479.99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73포인트(1.61%) 오르면서 741.34에 마감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에 혼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시기는 이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여전히 금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72.53)보다 28.90포인트(1.17%) 상승한 2501.43,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29.54)보다 11.43포인트(1.57%) 오른 740.97에 거래를 시작했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아이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 대신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택하는 쪽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돌입 전 가장 중요한 발언이었다”며 “연설 전부터 잭슨홀 연설 때만큼의 대파적 발

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컸던 만큼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에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에서 파월 의장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수가 일제히 치솟았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4.41% 급등하면서 4거래일 만에 급반등했다. 더불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

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각각 3.09%, 2.18%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파월의 언급과 더불어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역시 향후 국내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 발언에 힘 입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등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미 레이몬드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경제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미중 갈등 완화로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안도 랠리 가능성이 있지만,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월의 발언은 시장의 단기 랠리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12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연준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속도조절에서 최종금리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FOMC 전후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위험관리에 할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배당의 계절... 기업은행 등 금융주 ‘눈독’

투자자들 ‘고배당주’에 관심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연말 결산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배당주에서는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금융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투자자들이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락일(폐장일 이틀 전)’ 하루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올해는 12월 27일까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10월 말 대비 9.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7.8% 상승한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들의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코스피 상장 종목 중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을 모아 둔 지수다. 고배당50 지수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형주를 비롯해 금융주와 증권, 보험 등 금융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금융주 비중이 55%에 달한다.

KB증권은 금융주와 비금융주를 각각 고려해서 배당주를 선택하라고 조언

했다. 배당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주는 배당 성향을, 비금융주는 주당배당금(DPS)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금융주는 이익과 배당 성향을 낮게 감안해도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고, 비금융주는 DPS를 줄인 전력이 적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주는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더 하겠다’, 비금융주는 ‘실적이 안 좋아도 꾸준히 배당하겠다’의 입장을 갖고 배당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종목으로는 금융주에서 기업은행(예상배당수익률 7.7%), 삼성카드(7.7%), 삼성화재(6.3%), BNK금융지주(8.3%), 우리금융지주(7.6%)를, 비금융주에서 LX인터내셔널(7.1%), HD현대(5.7%), KT(5.6%), GS건설(5.5%), 영원무역홀딩스(5.4%) 등을 꼽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배당주에 투자했을 경우 내년 1월 효과(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까지 기대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익률 관점에서 코스피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이 유효하지만 시세 차이

관점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왜냐하면 배당락 이후 한달 동안 코스닥 수익률이 1월 효과 덕분에 우상향하는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평균 수익률은 5.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의 배당 제도 변경 추진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당금 규모를 우선 결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가 결정된 후 투자가 가능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1개월 정도 단축된 시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투자자 유입을 위해 배당금 규모를 늘려야 하므로 배당 수익도 높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록 지난해 코스피 배당 성향은 35.41% 수준으로 직전 해 대비 감소했지만 최근 몇년간 보여온 배당 성향의 증가 트렌드가 배당주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배당 제도 변경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배당주 투자 환경이 개선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새 해외주식 서비스로 서학개미 잡는다

NH증권 ‘해외주식 리테일 대어플’
유안타증권, 美 IPO 공모주 청약 대행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증권사들의 올 3분기 연결기준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잡기 위해 새로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 3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45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의 거래대금 감소로 수수료 이익이 급감하는 반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서학개미를 잡기 위한 특화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리테일 대어플 서비스’를 실시했다. 리테일 대어플 서비스는



개인·법인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주식 대어플에 대한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어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체결 내역 확인 및 대어 기간에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증자와 배당 등 권리 유지가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8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미국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10월부터 재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청약 신청권을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IPO 중개 회사를 통해 미국 IPO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원관희 기자 wkh@

자본시장 규제위반 제재조치 대상자 공개

금융위, 불공정 거래 예방일환 실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모·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금융위·증권위 운영규칙을 개정해 증권위 제재의 결정(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대 제3자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의무 위반, 공모도규제 위반 등) 규제 위반자는 의결 후 2개월 내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예탁결제원, 외국인 국채투자 쉬워진다

내년 ‘국채통합계좌시스템’ 개시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채통합계좌시스템’이 개시되면서 외국인 투자등록(IRC)과 대리인 선임, 국내 계좌 개설 등 절차가 생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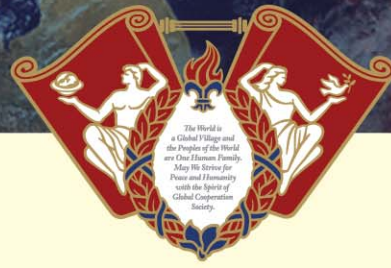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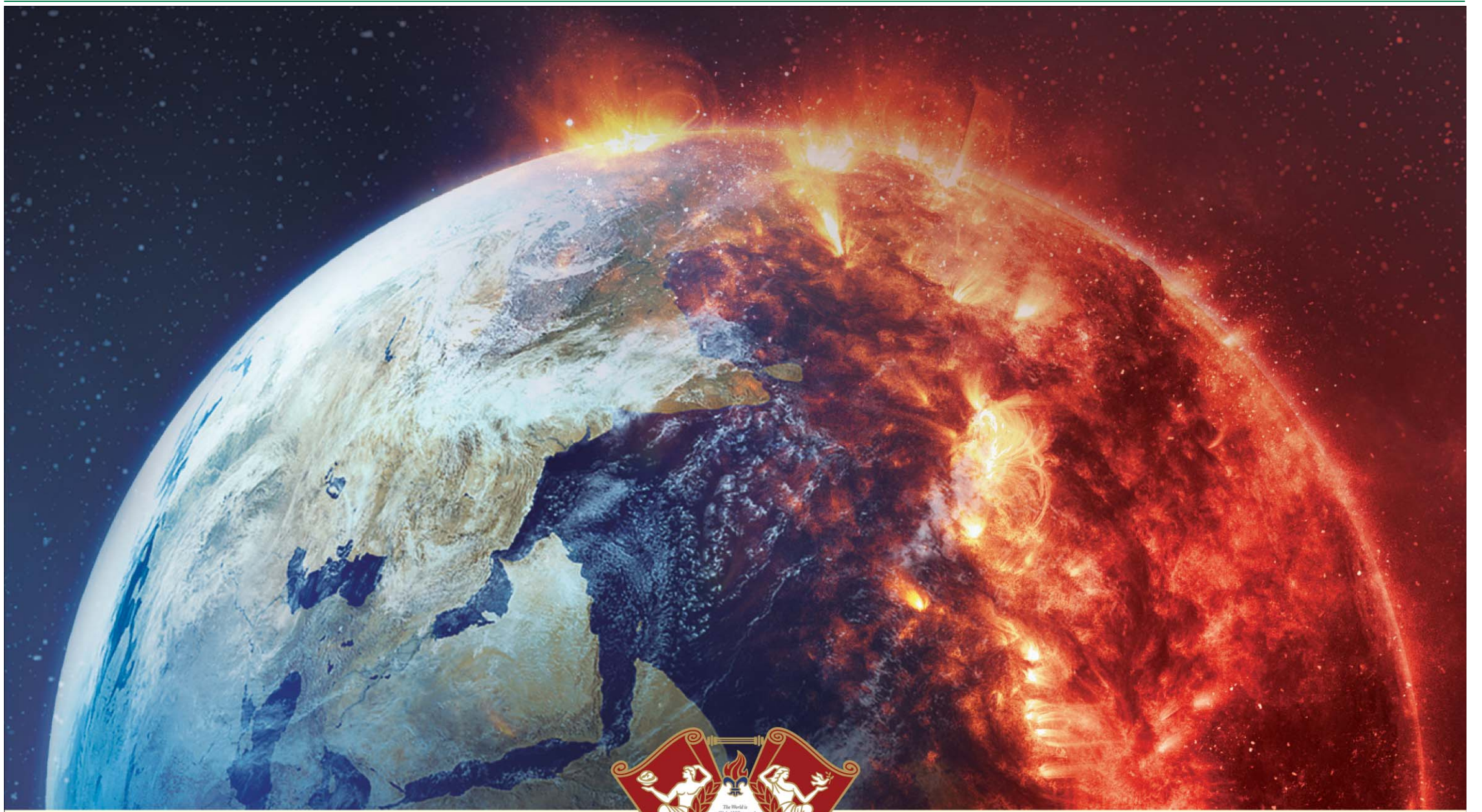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과 관리가 가능하다.

예탁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실존의 순간, 인류문명의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행성의 위기와 함께 인류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동행동, 아니면 집단자살(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지난달 독일 피터스버그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전한 인류의 극단적 선택지입니다. 지난 만년 지구기후의 안전핀으로 작동했던 극지방 기후체계의 혼돈, 40~50도를 오르내리는 북반구 곳곳의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전 세계 드넓은 산야에 퍼져나간 거친 불길과 세계 도처의 폭우.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더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00여 년, 현대사회, 인류문명의 눈부신 성장의 뒤편에 드리운 기아와 빈곤, 전쟁과 폭력, 가공할 핵전쟁의 위협과 함께 인류는 지금 팬데믹 위기, 지구적 재앙의 실존적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미래문명원, 경희의료원의 의과학문명원이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온 경희학원과 함께 미래 시민의 실존적 관심을 요청합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써 내려온 인간의 역사를 인류와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상상하고, 미래의 더 나은 가치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명, 인간과 지구의 평화를 함께 찾아 나서며 미래를 위한 도전적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 여정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가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대화와 실천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023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 : 2022.12.1(목) ~ 2023.1.10(화)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

2023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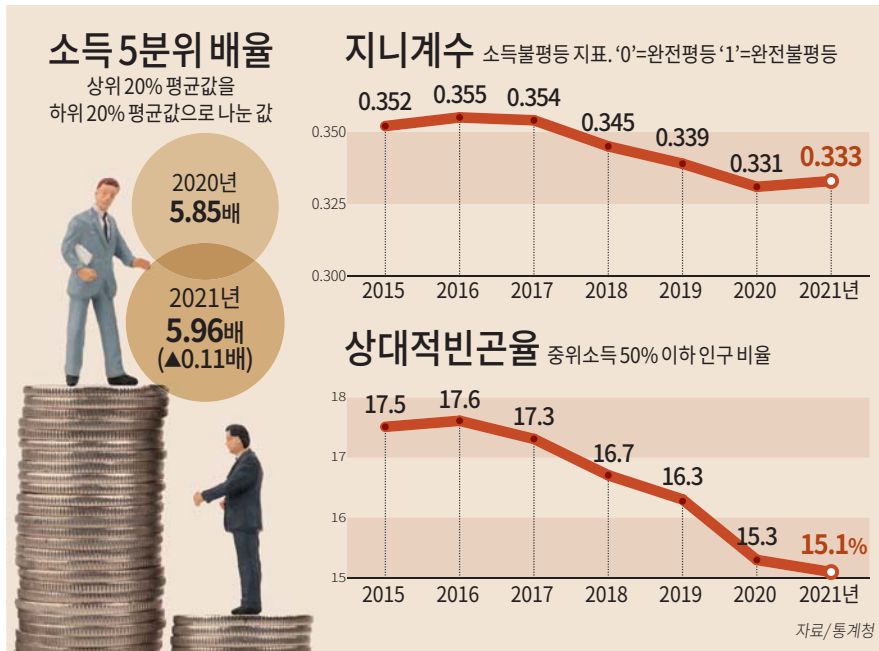
접수기간 : 2022.11.14(월) ~ 12.09(금)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

달힌 지갑에 경제지표 '신음'... 상·하위 소득격차 약 6배

민간소비 1.9→1.7%로 0.2%p ↓
실질 국민총소득 465조1000억
소득 불평등도 '지니계수'도 악화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0.7%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연쇄 총파업 등의 악재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수출상황도 악화돼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가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20%인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 소득은 6배 가량 차이가 나며 분배지표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도치(0.3%)와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민간소비가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 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줄어

었다.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악화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19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감소 폭도 두 자릿수로 커졌다.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며 지난 달 무역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

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누적 적자는 426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잇따른 총파업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분배 지표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이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인 1분위보다 5.96배 많아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4년 간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들어 다시 나빠졌다는 점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

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지원금이 나왔지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적 이전 효과가 큰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5년 만에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또한 4년 연속 개선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악화됐다.

정부는 소득·분배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 완화,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되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무역수지 -70억달러... IMF 이후 최장 적자 3분기 GDP 성장률 0.3%... 내수로 버텼다

에너지 위주 수입 급등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영향
대 세계 수입 3개월 연속 ↓

지난달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에너지 위주 수입이 급등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지난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51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603억달러) 대비 14.0% 급감했다. 수입은 589.3억달러(+2.7%)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4월부터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이어지며 IMF 이후 최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8월 -94.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 수출 급감... 세계 경기둔화에 화물연대 총파업 복합 영향

주요국 금리인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 수입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은 높은 물가압력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등으로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부동산 침체, 제로 코로나 등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대 세계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수요 약세·재고누적 등 영향으로 제품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 자동차(31.0%)와 석유제품(26.0%)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차부품(0.9%), 이차전지(0.5%) 수출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반



1일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도체(-29.8%), 석유화학(-26.5%), 무선통신(-18.7%),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등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은 역대 11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특히 자동차는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 5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은 113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5% 감소한 수준이다. 3대 수출지역인 아세안 수출(90.8억달러) 역시 13.9% 감소했고, 일본(-17.8%), 중남미(-19.1%), 인도(-5.9%)로의 수출이 줄었다.

대미 수출은 87억9000만달러(+8.0%)로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4.5%)과 CIS(4.6%), 유럽연합(0.1%)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은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다. 11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5억1000만달러로 전년(122.1억달러) 대비 33억달러(27.1%) 상회했다.

◆ 1~11월 누계 첫 6000억달러 돌파... 자동차·석유제품 버팀목

다만, 1~11월까지 누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6291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아세안·미국 등 주력시장과 유럽연합·중동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대 중국 의존도가 2021년 25.3%에서 2022년 1~11월 23.0%로 완화됐다. 특히, 대미 수출(1004억달러)은 처음으로 연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작용하며 수출 감소폭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실질 무역손익 35조7000억으로 줄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분기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대비 0.7%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도치(0.3%)와 동일한 수치다.

다만 앞서 속도치에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추가한 결과 민간소비가 1.9%에서 1.7%로 0.5%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오락 및 취미용품 등 준 내구재와 음식숙박 등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며 0.2% 감소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7.9%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7% 감소한 46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GNI는 전체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으

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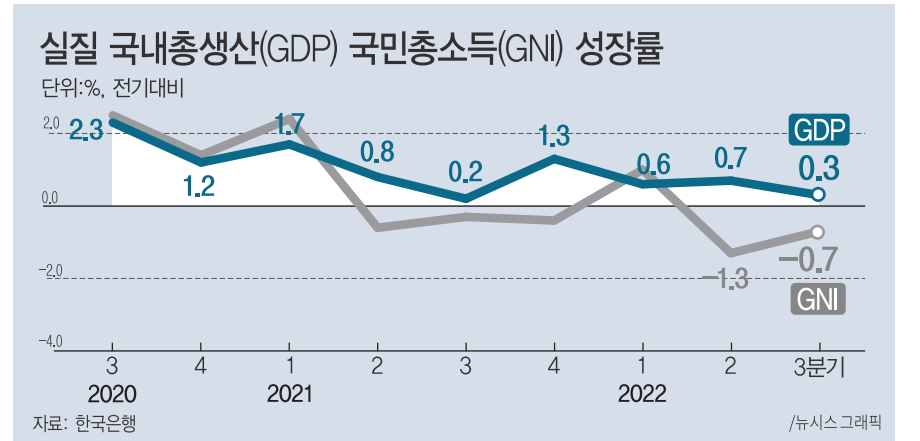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 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국외순취요소소득이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익이 같은 기간 28조원에서 35조 7000억원으로 더 크게 줄어 실질 GNI도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GNI는 전기 대비 0.1% 감소한 546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외순취요소소득이 2분기 2조5000억원에서 3분기 7조2000억원으로 늘어 명목 GDP성장률(-0.4%)을 상회했다.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 0.2%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총저축률은 32.7%로 전기대비 1.5%p 하락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0%)보다 최종소비지출(2.2%)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영향이다. 국내 총투자율은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2.2%p 오른 34.5%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218조... 물류·IT분야 의존도 높아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총 비중 11.6%... 전년비 소폭 증가
상위 10개 대기업서 155조9000억
총수 2세 지분 많을수록 비중 커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18조원, 내부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18.8%(3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체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다만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고,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해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2.4%) 감소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대다수(91.1%)가 수익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익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올해 처음 분석·공개된 물류·서비스 분야 내부거래의 경우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익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 부문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은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내부매출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이었다.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었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익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당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중소 미래비전 상징 조형물' 설치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60년 역사를 기념하고 100년의 미래비전을 담은 조형물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정문에 설치했다. 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

LX홀딩스가 그룹 차원의 미래 준비를 위해 지분 100%를 출자해 LX MDI를 설립했다.

1일 LX홀딩스에 따르면 LX MDI(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는 그룹 계열사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컨설팅, IT·업무 인프라 혁신, 미래 인재 육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아울러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LX MDI는 중장기적으로 사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MI(Market Intelligence) 기능을 강화해 고객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의

사업 방향과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날 열린 LX MDI 이사회에서 구형모 LX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 서동현 LX판토스 경영진단·개선담당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LX홀딩스 관계자는 "LX MDI는 계열사의 사업 경쟁력과 조직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준비를 주도하는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기업 86%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 부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2%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73.4%는 '다소 부담', 12.8%는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했고, '부담없음'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 90%이상'을 목표로 수립하고, '탈플라스틱'(50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30년 3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27년)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보다 정책목표가 앞서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 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공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인식은 엇갈렸다.

대한상의 '순환경제 정책' 설문

대부분 정책 취지엔 공감대
93.4% 순환경제 사업 추진
인센티브 등 규제 개선 필요



/유투이미지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에 달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는 응답과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인 응답도 40.1%에 달했다.

응답기업의 93.4%는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은 2.6%,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은 4.0%에 불과했다.

순환경제 사업 유형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사업장 관리'가 67.5%로 가장 많았고, 제품 수명 연장, 중고부품 재생 등 '재사용'(24.3%), 폐자원 '재활용'(16.4%), 대체소재 사용 등 '친환경제품 개발'(15.4%), '제품 공유 및 서비스'(2.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폐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폐배터리·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관리

부터 제품화까지 순환경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양질의 폐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수거, 선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D사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반납, 분리, 보관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반면, 노트북, 핸드폰 등에 내장된 가정용 2차 배터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리튬·니켈·코발트 등 금속 회수가 가능한 배터리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정용 2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홍보와 지자체 관리를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향후 10년내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 개발, 폐자원 확보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의지가 높지만 목표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서울 서남권 창업·R&D기반 구축 창동·상계 일대 문화시설 등 건립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
동남권에 국제업무·MICE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등 조성
대학·상권 활용 균형발전 선도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균형발전계획은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생활SOC 확충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5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한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창업·R&D기반을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대학, 상권 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만든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도 조성한다.

동북권은 대학과 흥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하고, 서남권은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창업 밸리로 조성하며, 서북권은 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창업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SOC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조성을

지원한다. 공원이 부족한 서남권에는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시는 대중교통 소의 지역에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의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가 확정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철도와 GTX-B·C, 버스와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환승 편의성을 높여 청량리역을 동북부 교통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다.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신축통합 기획 적용, 주거정비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상업·업무, 주거, 생활SOC 등 다양한 필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대학교와 국방시설연구협회가 군 재난안전발전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대

경기대, 군 재난안전 발전연구 나선다

국방시설연구협회와 업무협약
“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 되길”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은 ‘군 재난안전발전연구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비전통 군사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붕괴, 화재, 대형참사, 감염병 등의 재난과 테러 및 사이버 재난 등의 영역까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매뉴얼·국민행동 요령 등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기업체나 정부 기관 장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 주둔시설이나 경계시설, 창고, 정비시설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산사태, 침수, 산불, 폭설, 붕괴 등에 대단히 취약하고, 야전부대에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보 유통과 대응체계 구축, 통합된 훈련 등

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국가재난이 발생시 긴급 구조기관의 일원으로서 수습과 대응, 대민 지원 등에 투입돼야 하나 정작 이에 대한 교범이나 매뉴얼은 미흡하다. 야전부대에서는 그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군 부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와 (사)국방시설연구협회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연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시설연구협회는 2007년도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방시설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시설 발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방시설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은 “학교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 및 국방시설분야의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시설분야의 재난안전연구에 양기관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학·연간의 재난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野·교육계, 고등특별회계법 지정철회 촉구

본회의에 법안 자동부의 ‘반발’
“예산안에 세입예산 반영 안돼
부수법안 지정 용납 할 수 없어”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국민 위한 예산·세법 만들어내야”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덜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한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도 특별회계로 이관돼 총 11조원 상당이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 초·중등 교육계는 ‘윗돌 빼서 아랫돌 고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협의체의 막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조율에서 교육세 3조를 초·중등과 대학·평생교육에 분배해 나누는 방식이 논의됐다. 더불어 교육교부금이 70조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재정 보전 방안도 협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사실상 여·야·정의 협의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30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예산 부수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흥 교육위원장 등 야당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성명을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사이버대,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9개 단과대학, 40개 학과 보유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23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서울사이버대는 2년 연속 최다 입학생이 등록한 사이버대학이며(2021~2022 대학알리미), 사이버대 최초로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2007, 2013, 2020)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12월 1일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학생 수요조사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신설한 모델연기전공과 새롭게 확대개편한 드론·로봇융합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을 포함한 9개 단과대학(학부), 총 40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심리·상담대학 -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사회과학대학 -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융합경영대학 -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공과대학 - 컴

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디자인대학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미래융합인재학부 - AI·소프트웨어전공, 온라인커머스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통합건강관리전공, 회화·공예전공, 모델연기전공(신설) ▲국방융합학부 - 드론·로봇융합전공, 국방기술전공, 국방관리전공, 국제협력·북한전공 등이 있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 격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사이버대 입학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강인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서울사이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혁신 투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의 22번째

韓 탈춤, 상호 존중의 공동체유산 '예천청단놀이', 6마당 무언극 하회마을, 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한국의 탈춤’이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경상북도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 지난달 11월 30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모로코(수도 라바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한국의 탈춤’을 등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11월초 무형유산위원회 산하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 됐는데,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등재 결정된 ‘한국의 탈춤’은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 무형문화재로 구성된 총 18개의 탈춤 종목이다.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모순을 춤, 노래, 말, 동작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유쾌하게 풍자하면서도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크게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탈춤에는 도내에서 전승·보존돼 온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이」가 포함돼 있어 경북도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경북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인 「예천청단놀이」은 예천 지역에서 전승돼온 국내에선 보기 드문 무언극

(無言劇)으로서, 독특한 형태의 주지관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키로 만든 탈을 사용하며, 광대 북놀이·양반놀이·주지놀이·지연광대놀이·중놀이·무동놀이 등 6마당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승·보존해 온 안동의 하회마을은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유산 분야의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역사마을이 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의미가 더욱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쾌거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문화를 소중히 지켜온 지역 주민들과 등재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경북은 명실공히 세계유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국내 세계유산 최다 보유 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박형준 부산시장 전국여성대회 우수지자체장상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57회째 맞이한 전국여성대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했고, ‘여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전국 최초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를 개소하여 여성폭력 제로를 위한 부산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밀양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기관’

밀양시는 환경부로부터 ‘2022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중 지방 환경청 1차 평가로 추천된 최종 9개소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학계·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효과, 사후관리 적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밀양시 단장천 생태하천이 우수사례 하천으로 최종 선정됐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여수시가 지난달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여수’ 출범을 선포했다.

여수시, 스마트관광도시 선포

IT기술로 지역관광 활성화

문체부 등 9개 부서 합동 공모 스마트관광 5대 요소 적용

여수시가 지난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여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 이순미 여수시관광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해 전라남도과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과 기술을 접목해 IT기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편리한 여행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코리아 토틸 관광 패키지(KTT

P)’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KTT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도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여수시는 KTT의 핵심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권장 스마트관광 5대 요소를 적용하여 국비 35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28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한 다양한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정기명 시장은 “세계로 도약하는 여수를 위해 항상 함께해주시고 응원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iacocom@

전남 귀농어귀촌 평가 ‘고흥군’ 최우수

자체 설명회 개최 등 우수한 성적

전남도는 귀농어귀촌 정책 1년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2022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정책 종합평가’에서 고흥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흥군에 이어 우수상은 보성·강진군, 장려상은 화순·장성·해남군이 차지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이다.

고흥군은 귀농어귀촌 자체 교육·설명회 개최, 다양한 귀농어귀촌 홍보 활동 추진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추진실적과 누리집 정보제공 부문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강진군은 귀농어귀촌 교육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은 귀농어귀촌 사업 추진 실적, 귀농어귀촌인 유치 실적, 귀농창업자금 융자 실적 등 8개 항목 12개 평가지표로 각 시·군의 2022년 업무 추진 성과를 집계 평가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시상으로 우수 시·군을 격려함으로써 귀농어귀촌인 유치 지원정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 정책을 통해 도시민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우수 시·군 시상식 2일 예정된 ‘2022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에서 열린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2030엑스포 유치 홍보 ‘온힘’

카리브지역 국가장·차관 초청

부산시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2022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한 카리브지역 국가장·차관과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등을 부산으로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벌인다.

‘2022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2011년부터 매년 카리브 국가와 지역 기구 대표를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행사로 올해는 11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외교부 주최로 개최됐다.

시는 양일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로 준비된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성권 부산시 경

제부시장 주재 환영오찬과 양자면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 시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교류가 어려웠던 카리브 지역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을 상대로 부산과의 국제 교류 협력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해수면 상승 문제 극복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프로젝트 등 친환경 가치 공유, 카리브국가연합(ACS) 등 중남미 지역 기구를 통한 부산-카리브 교류 협력 등 경제·금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양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

신규사업 적정성·효율성 살펴

광양시는 지난 30일 교육환경개선 위원회를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87개소의 2023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주재로 광양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교육장,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광양시의

회 백성호 의원, 김보라 의원을 비롯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받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학교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사천시 내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선정

사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천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자체의 20개 관광지를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경남에서는 사천시가 유일하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등 관광 약자가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해 전 국민이 관광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메타버스서 탄소절감 게임하고, 모바일상품권도 받아요”

가상현실 플랫폼 사용기

#SSG닷컴 메인 화면 홍보 이미지를 통해 가상현실 플랫폼 'ZEP'에 만들어진 '캡틴 슝'에 접속하자 아바타가 생성됐다. 화면에 나타난 '캡틴 슝'은 현재 지구의 시간은 오후 9시28분이라고 알려주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함께 게임을 하자!' 제안한다. 게임을 시작하자 OX퀴즈를 비롯한 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친절한 설명으로 나열됐다.

#앱(APP)을 켜자 귀여운 원숭이 캐릭터 '원둥이'가 화면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OO와인 최저가!' 등 다양한 말풍선을 띄운다. 원둥이가 돌아다니는 작은 공간에는 NFT, GAME, 쿠폰함, 픽업박스 등 다양한 메뉴가 귀여운 그래픽으로 구현돼 있다. 'GAME' 메뉴로 들어가자 보드게임 '부루마블'을 연상케 하는 지도가 나왔다. 주사위를 던지자 '도사락 만들기' '커피만들기 게임' '틀린그림 찾기' 등 간단한 미니게임들이 시작됐다.

신세계 그룹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게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져 오프라인까지 좌지우지 하자 온라인의 선두주자 이미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9%에 달하며 2361명의 응답자 중 57.4%가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



SSG닷컴이 가상현실 플랫폼 ZEP에 연 '캡틴 슝 : 게임체인저' 맵의 모습. OX 게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알려준다.

SSG닷컴 '캡틴 슝'
메타버스 활용 친환경 캠페인 펼쳐 첫 접속에도 어렵지 않게 미션 깨

이마트24, 자체 앱 게임 전환
게임으로 마케팅 인지하게 기획 게임 리워드, 상품권으로 교환

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직관적인 그래픽과 친절한 캐릭터들의 설명으로 메타버스를 처음 접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미션을 깰 수 있다. 조작이 어려워도 채팅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접속해 게임 중인 다른 유저들이 도와주기도 한다. 참여한 고객에게 혜택도 있다. 모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고객은 친환경 키트 혹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보물찾기' 단계에서 최단 기록을 세운 10명에게는 매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너스스테이지 참여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마트24는 아예 자체 앱을 게임으로 전환해 지난 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편의점 이용을 위한 앱과 게임 앱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담았다. 앱에서 게임을 하지 않아도 편의점 이용을 위한

이 자연스럽게 탄소절감을 위한 방법들

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직관적인 그래픽과 친절한 캐릭터들의 설명으로 메타버스를 처음 접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미션을 깰 수 있다. 조작이 어려워도 채팅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접속해 게임 중인 다른 유저들이 도와주기도 한다. 참여한 고객에게 혜택도 있다. 모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고객은 친환경 키트 혹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보물찾기' 단계에서 최단 기록을 세운 10명에게는 매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너스스테이지 참여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마트24는 아예 자체 앱을 게임으로 전환해 지난 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편의점 이용을 위한 앱과 게임 앱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담았다. 앱에서 게임을 하지 않아도 편의점 이용을 위한

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임은 일정 수준 이상 재화를 얻으면 이를 모바일 상품권 또는 할인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중독성 있는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객이 이마트24의 마케팅과 상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게임 리워드도 획득한 혜택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온·오프라인 간 연결성을 지켰다.

신호상 이마트24 마케팅담당 상무는 "앱에서 쇼핑과 게임을 하면서 고객들은 이마트24가 진행 중인 이벤트와 상품을 접하고 되고, 맛있다, 푸짐하다, 가성비 좋다와 같은 지속적인 메시지는 이마트24의 장점이 각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의 잇따른 온라인

마케팅과 새로운 시도를 향후 '신세계 유니버스' 구축을 위한 초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24가 내놓은 앱을 둘러싼 관심이 크다. 이마트24는 이번 앱 제작을 위해 글로벌 멀티플랫폼 게임사 '랩퍼스'와 14개월에 걸친 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을 위해 양사가 향후 5년을 생각하며 수백 차례 미팅을 가졌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통기업들이 온라인 상에서 게임화(게임이피케이션)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신세계가 내놓은 수준의 마케팅까지 진행한 예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신세계가 온라인, 특히 모바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 채널의 온라인화, 특히 사용 기기의 모바일 전환이 빨라지고 있지만 다양한 고객 서비스와 온라인 상에서 특별한 지위를 확보한 기업은 없다"며 "메타버스 상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추후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신세계가 온라인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먹거리 50% 할인, 생필품 1+1 '홈플러스대란'

홈플러스, 7일까지 혜택·이벤트 이번주 신선식품 200여종 준비

홈플러스가 1일부터 7일까지 연말 맞이 '홈플러스대란'을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올해 판매량이 높았던 인기 먹거리 최대 50% 할인, 생필품 1+1, 생활용품 및 가전 특가, 재고상품 창고대방출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한다.

신선식품은 이번 주 200여 종의 행사 상품을 준비했다. '홈플러스대란' 행사를 위해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은 1일부터 4일까지 행사 물량을 150톤 가량 확보했다. 팔기는 전월 대비 물량을 약 30% 확대하고, 밤과 호박고구마는 전주 대비 물량을 약 40톤 늘렸다.

12월은 연말 모임이 많아 육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육류를 기간별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1일부터 4일까지는 1등급 이상 일품



모델들이 1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홈플러스대란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이날부터 '홈플러스대란' 행사를 시작한다. /홈플러스

삼겹살/목심과 미국산 초이스 토시살을, 5일부터 7일까지는 캐나다산 삼겹살/목심을, 1일부터 7일까지는 농협안심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곰국거리를 최대 50% 할인한다.

과일도 행사카드 결제시 5000원을 할

인해주며 해양수산부와 협업한 수산물 이력제 상품은 50% 할인 판매한다.

델리 상품 구색도 크게 늘렸다. 하반기 히트상품인 '당당치킨'도 '당당 시리즈'로 8종까지 구색을 확대했다.

/김서현 기자

카누 아메리카노 1만5720원→1만7260원 (90g 제품)

동서식품, 커피믹스 등 가격인상

동서식품이 오는 15일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9.8% 인상한다.

인상 후 맥심 오리지날 리필 170g 제품은 6090원에서 6680원으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2kg 제품은 1만2140원에서 1만3330원으로, 맥심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은 1만5720원에서 1만7260원으로 인상된다.

동서식품 측은 가격인상의 이유로 "물엿, 설탕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더해 높아진 환율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커피 원두 및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높아진 환율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동안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하여 왔으나, 지속되는 높은 원재료 가격 수준과 고풍을 영향을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하이마트 '피파 23 토너먼트' 게임대회

6일까지 참가자팀 모집

롯데하이마트가 월드컵 기간에 맞춰 '롯데하이마트 피파 23 토너먼트' 게임대회를 연다. 종목은 축구 비디오키프 게임 'EA 스포츠 FIFA 23(피파 23)'이며 6일까지 참가 팀을 모집한다.

팀은 2인 1팀 구성으로, 팀 대표 1인이 응모할 수 있다. 무작위 추첨으로 32개 팀을 선정해 9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는 롯데하이마트 전국 400여 매장과 쇼핑몰 앱에서 할 수 있다.

대회는 메가스토어 잠실점 시스기어 e-스포츠 아레나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대회에서 사용할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는 별도 제공된다.

1위 팀 전원에게는 'PS5 디스크에디션 플레이스테이션5 디스크에디션 피파 23' 받들 증정한다. 이 밖에 순위에 따라 펠스 3D, 무선 헤드셋,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 등을 증정한다. 1등과 2등을 제외한 본선 참가 팀 전원에게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도 준다.

대회를 가해 17일 단 하루 메가스토어 잠실점에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피파 23'을 포함한 주요 게임 타이틀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농심 라이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출시

오메가3에 비타민D·E 더해

농심이 1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이필'의 신제품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라이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는 프랑스 플라리스(Plaris)사에서 생산한 알티지 오메가3에

일일 영양섭취량을 충족하는 비타민D와 비타민E 등을 더한 제품이다.

알티지(rTG) 오메가3는 기존 오메가3(TG, EE)보다 순도와 흡수율이 더 높을 때 붙여지는 이름이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질과 혈행,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타

민D는 뼈의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농심이 적용한 식물성 오메가3는 바다의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것으로, 어취가 없다. 유럽 바이라벨(V-LABEL)의 비건 인증과 코셔, 할랄, ISO9001(국제표준화기구), GOED(국제오메가3협회) 등 국제 인증을 받았다. /김서현 기자

대웅제약 '36호 신약' 탄생... 2년 연속 개발성공 '쾌거'

당뇨병 치료 신약 '엔블로정'
국내 최초 저해제 계열 개발
2030년까지 50개국 진출 계획

대웅제약이 2년 연속 국산 신약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34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는데 이어 올해 당뇨병 치료 신약 '엔블로정'이 36호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은 대웅제약이 처음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 저해제 계열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 0.3밀리그램(mg)'이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적응증은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 총 3건이다.

그간 다국적 제약사 위주로 개발 및 허가가 진행됐던 SGLT2 저해제 계열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

영역에서 대웅제약은 국내 최초로 해당 계열 당뇨병 신약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됐다. 약 93조원에 달하는 전 세계 제 2형 당뇨병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SGLT2 저해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는 2021년 기준 글로벌 약 27조원, 국내 약 1500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은 엔블로정의 국내 시장 출시를 위해 즉시 급여 및 약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 모두 2023년 상반기에 급여 등재할 계획이다.

엔블로정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함께 준비한다. 대웅제약은 2025년까지 중

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0개국,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50개국에 진출한다는 로드맵을 구성했다.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과 다양한 성분의 복합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메트포르민 복합제는 임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3년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통해 엔블로정의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SGLT2 저해제의 30분의1 이하에 불과한 0.3mg만으로 동등한 약효를 증명해 엔블로정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전망이다.

단독요법의 경우 투약 후 24주차 시점에 엔블로정 투약군이 위약군 대비

당화혈색소(HbA1c)가 약 1%p 감소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또한 체중, 혈압, 저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LDL-C),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HDL-C)에서도 위약 대비 유의적 개선을 확인했다.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및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의 경우 대조군인 디아글리플로진과 24주간 투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저해제 계열의 엔블로정을 국산 기술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경쟁사와 큰 차이로 임상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며 "국내외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우수한(Best-In-Class) 당뇨병 신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JW생명과학이 최근 ICR 국제인증원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와 한현석 부사장(앞줄 세 번째부터)과 임직원들이 ISO45001 인증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JW생명과학, 안전보건경영 인정 받아

국제 'ISO45001' 인증 획득

JW생명과학은 ICR 국제인증원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018년 3월 제정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 노동자의 상해 및 질병 예방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 또는 기관에 부여한다.

JW생명과학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해 안전보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ISO45001 인증을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 내부 심사, 안전조치 등 24가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

JW생명과학은 ISO45001 인증을 계기로 안전보건 강조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ISO 45001에 기반한 활동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제약, '베그젤마' 국내 판매 돌입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확대, 시너지 등 기대

셀트리온제약이 1일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사진)'의 국내 판매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그젤마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상한금액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 이번에 국내 출시된 '베그젤마 0.1g/4ml'와 '베그젤마 0.4g/16ml'의 약가는 각각 20만8144원과 67만7471원으로 책정됐다.

베그젤마는 앞서 8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해 이미 유럽에서는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 9월에는 영국 의약품규제국(MHRA), 일본 후생노동성을 비롯해 미국 식품의



약국(FDA)에서 각각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아바스틴은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항암제로, 혈관 생성을 일으키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가 단백질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종양 혈관 생성 및 성장을 억제한다. 베그젤마는 특히 합의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적

응증으로 국내에서 처방된다.

특히 베그젤마는 별도의 안정성시험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이 경쟁제품(24개월) 대비 2배 늘어난 48개월로 확대됐으며, 희석액 냉장 보관(2-8℃)에서도 기존제품 대비 2배 늘어난 60일로 허가를 받아 사용자 입장에서 약품 관리가 용이한 것이 차별점이다.

셀트리온제약은 허주마와 트룩시마에 이어 베그젤마가 출시되며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 및 성장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주마는 약 30%, 혈액암치료제 트룩시마는 약 2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베그젤마가 속한 국내 베바시주맙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100억원 규모다.

/이세경 기자

후다닥, 비대면 진료 '후다닥 케어' 론칭

의료 서비스 접근성·형평성 제고

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 후다닥이 재진료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를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후다닥 케어'는 기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필요나 사정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안 등을 참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서벽지의 환자, 국외 거주 환자, 복지 및 교정 시설 내 환자,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남용 예방 같은 약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의약품 주문·배송하는 방식 대신 약사 등 전문가의 복약 상담이 가능한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전했다.

김승수 후다닥 대표는 "의료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의 구상과 운영,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대상 청정원 갈갈한 '김치우동' 신제품

대상(상) 청정원이 겨울철에 따뜻하게 먹기 좋은 '김치우동(사진)' 신제품을 출시했다.

청정원 '김치우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치는 국내외에서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종가'의 숙성맛김치가 사용됐다. 우동과 가장 잘 어울리도록 풍미를 최적화한 숙성김치는 어떠한 살균처리도 하지 않아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며 군내가 나지 않아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청정원 '김치우동'은 숙성맛김치에 구수한 사골육수와 가쓰오부시, 순창 고추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제 김치소스를 사용해 깊고 갈갈한 맛을 더했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12월 2일 (금)
음력 : 11월 9일

수도권 날씨
-7 ~ -2℃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29 | 해질 / 17:14

백령도 -4/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데이터를 통한 현실과 디지털 세계 연결
사고 Zero, AI 자율안전도로



도로에 Digital을 입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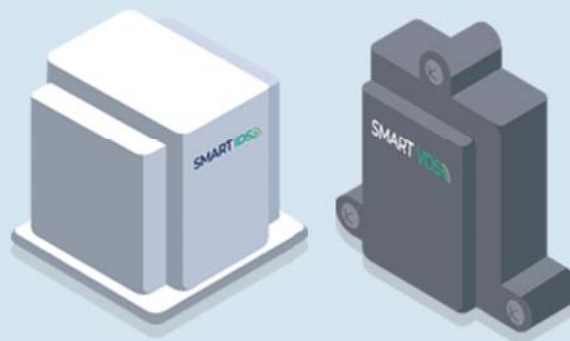
MESIM Data Fabric suite
MESIM AI Platform | Integration(ESB, APIG) | DataHUB



“자율주행 · C-ITS · ITS · 빅데이터 · 스마트시티, 고속도로 · 터널 · 교량 · 국도”

SMART IDS

사고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SI교통돌발상황레이더검지시스템



SMART 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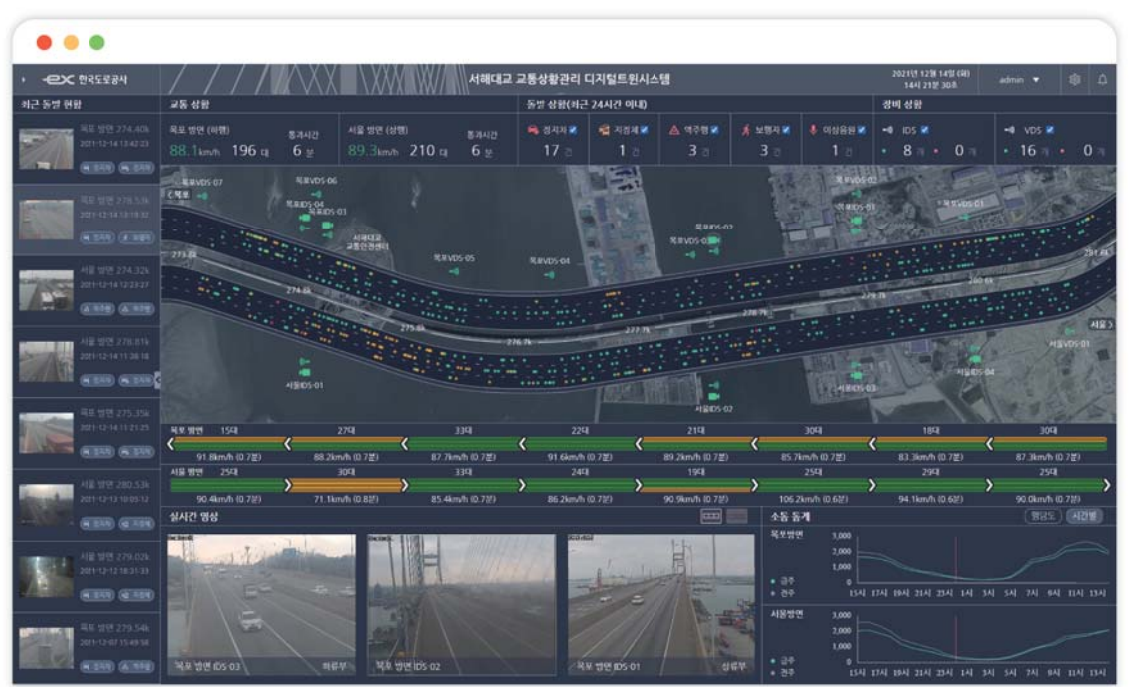
실시간으로 정확한 현장 교통정보 수집
SI교통차량속도레이더검지시스템



TRAFFIC DIGITAL TWIN

AI-디지털트윈 기반 각종 도로 인프라
통합적 교통 모니터링
교통디지털트윈플랫폼

- 개별 차량 데이터수집
- 현장&센터 간 지연없는 연결
- 다양한 교통정보로 활용
- 실제와 같은 교통 흐름



#재약산터널 #남산호터널 #봉평터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서해대교 #영종대교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
#경부고속 #강남순환 #자율주행 K-City #상주-영덕 #부산외곽 #세종CITS 등 150여 구간 공급 운영



금호석화, 동절기 장애인 시설 창호 교체 지원

금호석유화학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 시설 '효정비전타운'에 약 8,600만원 상당의 휴그린 창호를 지원하고 설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왼쪽부터)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와 허근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이 비대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건설, 1사 1촌 결연마을을 재배 농산물 기부

금호건설이 서울 중로구청 및 중로구 소재 청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1사1촌 결연 마을에서 구입한 쌀 400포대를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기부된 쌀은 중로구청과 청암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관내 기초수급 가구와 저소득층 아동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건설



SK시그넷 전기차 충전기, 'D2B디자인페어' 대상

SK시그넷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2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에서 SK시그넷의 전기차 충전기를 디자인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SK시그넷의 전기차 충전기를 디자인한 'POTAP(최완학·유기석/세종대학교)' 작품이 수상했다. /SK시그넷



행복얼라이언스, 대전 결식우리아동 위해 협력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30일 대전 지역 결식우리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행복도시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대전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행복도시사회적협동조합 최강중 이사장, 대전시 이태구 행정부시장, 행복얼라이언스(행복나래주) 조인영 본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



에이스침대-성균관대, 산학협력 공모전 진행

에이스침대가 MZ세대와 소통 확대를 위해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략학회 S-ONE과 산학협력 공모전을 진행했다. 1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이번 산학협력 공모전은 성균관대 경영전략학회 S-ONE 소속 학생들과 함께 MZ세대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신선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했다. /에이스침대

삼성, 연말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 쾌척

23개 관계사 함께 기금 조성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사용

삼성이 연말을 맞아 이웃들을 위해 큰 돈을 마련했다.

삼성은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삼성전자와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물산과 계열사, 삼성생명과 계열사 등 23개 관계사가 함께 조성했다. 대외 기부금 출연을 위한 승인 절차도 거쳤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계열사 임직원 수만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포함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



삼성이 NGO들과 제작한 탁상달력.

이다.

삼성은 1999년부터 2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성금을 기탁해왔다. 올해까지 누적으로 7700억원을 전달했다. 100억원부터 시작해 2012년부터는 금액을 다섯배까지 늘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흥식 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을 앞

두고 있다"며 "삼성이 기탁한 소중한 성금은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영무 사장은 "삼성의 연말 이웃사랑성금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삼성은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삼성물산 패션, 12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성과 나눴다

2022 동반성장데이 행사 진행 상생협력 바탕 공정거래 앞장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 12개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2022년 동반성장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물산패션부문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에 앞장서고 함께 성장해 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동반성장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패션부문은 제조업으로 구분돼



서울 도곡동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 달 30일 '2022년 동반성장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준서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하해의 송상무 부사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자·철강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등급을 얻어 동반성장제에 대한 철학에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우수 및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12개 회사 대표와 이준서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주요 브랜드 사업부장·팀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보임 변경 ◇환경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용호(SK실트론 사장) △ICT위원회 위원장 유영상(SK텔레콤 사장)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장 박상규(SK엔무브 사장) △Communication위원회 위원장 이형희 사장 △SV위원회 위원장 조경목(SK에너지 사장) △신규 선임 김김은정 김김현대 △모동렬 △이근구 △송수연
- ◆SK이노베이션 <사장 선임> ◇SK엔무브 △박상규 ◇SK아이이테크놀로지 △김철중 <사장 승진> ◇SK온 △최영찬 경영지원총괄 <임명 신규 선임> ◇SK이노베이션 △함형택 친환경기술혁신실장 △이성협 분석기술혁신실장 △김윤제 사업개발담당 △김성환 HR전략담당 △고홍태 정보보호담당 △조현일 Comm.기획담당 ◇mySUNI △허재훈 mySUNI 이천포럼담당 겸) BM College담당 △최근섭 mySUNI Biz Insight담당 겸) Green College담당 ◇SK에너지 △정동운 석유1공장 △손동하 CLX문화혁신실장 △주영규 Biz.환경실장 △윤구영 S&P추진단 임원 △김덕현 S&P추진단 임원 △조성민 산업에너지혁신사업부장 ◇SK지오센트릭 △권상민 경량화Solution사업부장 △강성찬 Basic Material사업부장 △김우성 중국마케팅실장 ◇SK온 △김세진 모종규 △한상규 △이승호 △임동훈 △김상진 △김영기 △정민철 △진선미 ◇SK엔무브 △서상혁 e-Fluids마케팅실장 △

- 출대의 기류경쟁력강화실장 △김미경 기류최적화실장 △안장원 엔무브출산공장장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배정권 Distillates사업부장 ◇SK아이이테크놀로지 △조자룡 신규고객개발담당 ◇SK인천석유화학 △반한승 Green Innovation 추진실장
- ◆SK텔레콤 ◇A. (에이닷)추진단 미래기획팀 보임 △유영상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CEO △김지현 A.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 겸 PMO 담당 △김지훈 A.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 △김지훈 A.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 겸 대화 담당 △이준형 A.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 겸 개발 담당 △손인혁 A.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 겸 PMO 담당 ◇C-레벨 임원 보임 변경 △임봉호 커스토퍼 CIC 담당 겸 모바일 CO 담당 김성수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커스토퍼 CIC 담당 겸 미디어/콘텐츠 CO 담당 △장현기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디지털혁신CT 담당(CDTO) △이현아 Comm서비스 담당(CPO) △김경덕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엔터프라이즈 C IC 담당 △양승현 AIX 담당 △한명진 Corporate 전략 담당(CSO) 겸 Next 서비스 담당 △조영록 CR 담당(CCRO) ◇신규 임원 선임 △손인혁 A.추진단, PMO 담당 겸 미래기획팀 담당 △이준형 A.추진단, 개발 담당 겸 미래기획팀 담당 △이정룡 A.추진단, 데이터 담당 △김상범 커스토퍼 CIC, 모바일 CO 유통 담당 △권해성 커스토퍼 CIC, 디지털혁신CT AI/DT 담당 △최재원 커스토퍼 CIC, 지

- 역CP 서부 담당 △복재원 ICT 인프라, 인프라 레드 담당 △이종훈 ICT 인프라, 인프라전략기술CT 인프라 Eng 담당 △석지환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데이터 담당 겸 A.추진단, 데이터 인프라 담당 △김동현 Corporate전략, 브랜드 전략Brand Comm 담당 △조상혁 Corporate Development, 전략제휴 담당 △엄종환 ESG, ESG추진 ESG 얼라이언스 담당 △이영탁 CR, CR지원 담당 △한상동 CR, 성장지원 담당 △민부식 기업문화, E R 담당 △홍승진 SK브로드밴드 커스토퍼 CIC, 유선사업CO 마케팅전략 담당 △이창훈 SK브로드밴드 커스토퍼 CIC, 미디어CO 콘텐츠 담당 △최성규 SK브로드밴드 엔터프라이즈 CIC, DC CO 담당 △정대인 GDG 담당 △노재상 말레이시아 컨트리 오피스 담당
- ◆SK ◇사장 승진 △이성형 CFO ◇신규 선임 △이시욱 Bio 투자센터 임원 △조아련 Bio 투자센터 임원 △조원상 Green 투자센터 임원 △최동희 Digital 투자센터 임원 △권병돈 재무부서 임원 △박재범 I R담당 임원 △김형준 Brand 담당 임원 △이혜정 업무지원실 임원 △유재욱 베트남 C/O (Country Office) 임원 △김동현 S K USA 임원
- ◆SK에코플랜트 ◇신규 임원 선임 △Eco Space사업관리담당 김경수 △SCM담당 김진환 △CR담당 박상진 △국내사업관리담당 박성기 △미래전략담당 배상빈 △W aste담당 송효준 △Global법무담당 신재동 △Global환경전략담당 신학진 △Eco

말했다.

아울러 삼성은 NGO 8곳과 함께 제작한 2023년도 탁상달력 32만개도 구입했다. 달력은 NGO와 삼성의 주요 CSR 활동 사진과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로 ▲청소년 학습지원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지구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했다.

삼성은 NGO의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달력을 자체 제작하는 대신 NGO와 협력해 제작한 달력을 활용하고 있다.

/김재욱 기자 juk@metroseoul.co.kr

홈쇼핑 지역 사회공헌 활동 2년 연속 인정기관

홈쇼핑이 '202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1일 홈쇼핑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홈쇼핑은 중소기업과의 다양한 상생활동, 친환경 사업, 취약 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자원봉사 실행, 윤리 경영 실천 등을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오세득씨 별세, 오경진(프로농구 KT 차장)씨 부친상 = 1일,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천안추모공원. 02-860-3500

BNK와 타이타닉호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얼음 바다가 삼켜버린 배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한 도시를 출항했다. 선장과 승무원, 승객을 합쳐서 약 2200여명이 배에 탔다. 프랑스의 웰부르와 아일랜드의 퀸스타운을 거쳐 미국 뉴욕으로 향하다가 4월 14일 밤 갑자기 빙산에 충돌해 침몰한다. 타이타닉호 침몰 희생자 수 집계는 다양하지만 영국 상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1500여명에 달한다. 구명보트 등으로 탈출한 생존자가 700여명에 불과한 역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다.

최근 BNK금융도 마치 타이타닉호 같다. 지방금융지주 1등으로 더 큰 꿈을 향해 향하고 있었지만 선장이 중도에 하차했다. 임기 5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가족의 의혹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진 것이다. 그러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차기 회장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내외부에서 수 많은 도전자가 뛰고 있다는 후문이다. 후보군은 자회사 대표 9명 외에 자문기관 2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후보가 대상이다. 외부 후보는 '정치'와 '관치'란 동양철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BNK는 지방금융지주 1등이다. 정치적 인연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언감생심 욕심을 내다간 탈이 난다. 허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는 아예 '염치'가 없는 사람도 있다. 과거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BNK를 알아봐 봤다간 큰 코 다친다. BNK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3분기 기준 159조 9000억원 규모다. 김지완 전 회장이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 키우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만 자산이 52조원이나 늘어났다. 은행, 증권, 캐피탈 등 포트폴리오도 탄탄해진 BNK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회장 자리를 차지할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내부 출신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려던 BNK가 항해 중에 빙산을 만나 건 반대편에 선 누군가의 욕심 때문이다.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더 높은 곳을 봤다. 만족할 줄 몰랐다. 최고 경영자가 내편이 아닌 사람도 안고 가야 한다며 끌어안았음을 몰랐던 것일까. 내부문제에 '정치'를 빌렸다는 의혹도 있다. 내가 안되면 같이 침몰하자고 맘 먹은 것일까. 지금과 같은 태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하수

다. 알고도 그랬다면 조직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 행동이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 조직은 나몰라라 한 셈이다. 당초 예상된 차기 회장 승계 구도에서 '반란'을 꿈꿨던 사람들의 결말은 쓸쓸한 퇴장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초호화선으로 불렸지만 한밤중에 빙산을 만나 일순간에 침몰한다. 부와 명예는 물론 사랑도 검은 바다에서 슬픈 운명을 맞는다. BNK의 운명도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다. 내부로부터 시작된 '불장난'이 '큰 불'로 번졌다. 누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BNK가 달라진다.

다시 외풍이 불기 시작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마지막 장면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BNK금융 직원들도 누가 차기 회장이 될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극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차기 회장은 내부는 물론 외부 인사까지 도전한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BNK호의 키를 쥐고 있다.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순리와 명분, 능력에 따라 차기 회장을 가려내야 한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태풍을 만난 BNK호가 침몰하지 않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한파의 한 가운데서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



김지수
원 관 희 (자본시장부)

금리인상에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이후 자금경색이 겹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PF를 펼쳤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수익성 없는 사업부를 통폐합하며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이 먼저 칼을 빼 들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까지 신입사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1일 법인영업부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

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지난해 증권사들은 부동산 PF사업으로 커다란 수익을 손쉽게 올렸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등 삼패인을 터뜨리기에 바빴다.

일부에서는 증권사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무리하게 부동산 PF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대형사는 2020년 말과 올해 3월 말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PF익스포저(위험노출 투자액)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중소형사는 2조8000억원 늘며 부동산PF에 대한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같은 우려의 소리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올들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이 계속해서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한 데다 호황이었던 부동산마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발 부동산 금융 시장의 한파는 결국 중소 증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정부와 대형증권사들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로 한번 얼어붙은 시장을 되살리기 쉽지 않았다. 중소증권사들은 상반기에 펼쳤던 성과급 잔치는 잊고 이제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을 내세워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 호황에 춤췄던 근시안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직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먼저 출선수범해서 책임지고 경영난을 돌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wkh@

오늘의 운세 12월 2일 (음 11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치우치지 말고 가족 간 화목을 우선시. 48년생 기회가 있으면 망설이지 마라. 60년생 금전과 사람이 따르는 하루. 72년생 일이 잘 풀려도 의외의 복병은 있다. 8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한 일을 마무리.
- 소** 37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있어 해결. 49년생 중심을 잘 잡아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61년생 남쪽으로 출장 수가 있다. 73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연인에게 상처를 준다. 85년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돕자.
- 호랑이** 38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하고 성실로 극복. 50년생 부러움을 살만한 기쁜 일이 생긴다. 6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공연한 방황인가. 74년생 인맥이 도움을 주어 성사된다. 86년생 자손탄생으로 가족이 활기차고 화목이 넘친다.
- 토끼** 39년생 동분주해봐야 이득이 없으나 그래도 움직여라. 51년생 조상의 한이 서리면 슬픈 일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63년생 형편과 능력에 맞춰서 행동. 75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친다. 87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 염** 40년생 남의 말만 듣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52년생 비 눈 뒤에 땅이 묻는다. 64년생 부부간에 견제하는 늘 있는 것 이혼이 웬 말인가. 76년생 소파와의 만남이 있을 듯. 88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돌아도 보자.
- 뱀** 41년생 이웃 간에 돕는 것이 인자상정. 53년생 동로의 작은 실수는 언젠가는 나도 만들 수 있다. 65년생 목이 마르면 물을 파는 노력을. 77년생 이성 간에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마라. 89년생 차근차근 자성과 따뜻한 감성을 찾도록.
- 말** 42년생 사귀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4년생 양손에 떡을 들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66년생 어려운 일은 스승님의 도움으로 극복. 78년생 운전 때에 늘 양보심을 갖도록 해야. 90년생 내 고집만 피우면 식구들도 외면.
- 양** 43년생 산에 들에 벌 내비가 많으니 유혹도 발생. 55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물건 잘 챙겨라. 67년생 상사의 도움으로 이득이 발생하니 감사. 79년생 여행을 바라지 않으면 운이 온다. 91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재물 어려움이 극복.
- 원숭이** 44년생 교양을 쌓는 것은 취미와는 다른 고차원. 56년생 사색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자. 68년생 자녀에게 정서적 배려는 나한테서 나오니 자성을 갖추자. 80년생 대기업에 취직 수가 있다. 92년생 경쟁에서 지는 것이 서글프다.
- 닭** 45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57년생 먼저 간 배우자의 슬픈 일은 잊어야 한다. 69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이다. 81년생 유아독존적 이기심을 버려라. 93년생 자녀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 개** 46년생 언제나 오늘 준비를 꼼꼼히 해야 내일이 편하다. 58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0년생 길을 나서려는데 비가 오니 우산이 없다. 82년생 목표를 정하여 우선 추진하자. 94년생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니 기다려라.
- 돼지** 47년생 친구의 부음을 듣는다. 59년생 다름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상책. 71년생 성공이 가장 좋은 교훈이다. 83년생 선봉에 나서다가 시기 질투를 받으나 그래도 도전. 95년생 참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함을 인식.

김상회의四季 우리가 만든 이상기후

기후 이변에 사막의 나라들이 중동이 연 평균 기온이 30도를 능가했다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덥기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에 눈이 내렸다거나 반대로 혹한으로 유명한 북극 툰드라의 눈과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만성이 되어간다. 그러나 기후 문제만큼은 무뎌져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이상 기후와 관련된 현상들이 보도될 때마다 환경문제를 내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직은 나랑은 관계없는 문제로 치부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클린 환경을 위해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 얼마 전 독일의 기후활동가들이 프랑스의 유명화가인 모네의 작품에 으깬 감자를 던지는 시위를 했다. 또 영국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 작품인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일도 있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기후단체인 '울티마 제네라지오네'는 소속 활동가들 4명이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 전시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씨 뿌리는 사람'에 역시 야채수프를 끼얹었다. 울티마 제네라지오네(Ultima Generazione)는 번역하면 '마지막 세대'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지 한가하게 예술작품 그림을 감상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들의 주장 표현방법이 과격하고 당연히 응원받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로서는 그만큼 기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다. 이상 기후는 동물도 벌레도 아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만든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 해결책 역시 인간들이 찾아야 한다. 그들의 일부 목소리라면 치부할일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2		9	8		7		
4			1	7				3
	7	1				9	3	
		8		2		5		
	4	3				2	6	
1			8	3				9
	3		2	9		8		

		8		5		1		
			1	8				
2			6					9
	4		3	5		9		
8		1		4		3		6
	2		8	6		1		
9				8				4
	6		2	7				

정답

1	8	2	6	9	7	4	5	9
6	7	9	5	2	8	3	1	4
2	9	5	9	1	7	6	8	2
8	9	2	1	6	2	4	7	9
2	1	9	7	8	9	8	9	6
7	6	9	8	9	1	2	2	2
9	6	7	2	5	9	2	1	8
5	2	8	2	9	1	9	6	7
9	2	1	8	7	6	9	2	5

1	8	2	7	6	9	9	5	9
2	9	6	2	5	9	7	8	1
7	5	9	1	8	9	2	2	6
2	1	7	9	6	8	5	2	9
9	9	5	2	7	2	1	6	8
8	6	2	9	1	5	2	7	9
6	2	8	5	9	7	9	1	2
9	2	9	8	2	1	6	5	7
5	7	1	6	9	2	8	9	2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0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18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슈퍼 파워’ 부르고뉴 전성시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2 리벡스 파워 100

와인하면 뭐니뭐니 해도 보르도였다. 레스토랑에 와인 리스트가 마련되기 시작하던 20년 전은 물론 10년 전, 아니 팬데믹 속에서 와인과 사랑에 빠진 이들도 내 와인잔 안에는 칠레 와인이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프랑스 보르도였다. 와인 행사라도 하면 보르도부터 찾아왔고, 연말 인센티브로 챙길 스스로를 위한 선물은 소위 ‘5대 샤토’로 불리는 보르도 1등급 그랑 크뤼 와인의 시음회였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와인잔을 처음 들기 시작하는 세대는 와인하면 부르고뉴를 떠올리게 됐다. 목적했던 보르도 레드와인의 자리는 여러여리하고 우아한 부르고뉴가 차지했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취향에 맞든, 아니면 향후 가격 상승을 노린 재테크든 이제 와인의 대명사는 부르고뉴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가



프랑스 부르고뉴 전경 / 더블링비즈니스

Brand	Overall Ranking
2022	
Leroy	1
Arnoux-Lachaux	2
Leflaive	3
Armand Rousseau	4
Prieure Roch	5
Dom Perignon	6
Louis Roederer	7
de la Romanee-Conti	8
Jacques-Frederic Mugnier	9
Krug	10

와인전문잡지 드링크비즈니스와 함께 발표한 ‘2022 리벡스 파워 100’ 리스트의 상위 목록은 부르고뉴와 샤파뉴가 모두 휩쓸었다. 톱 10 안에 보르도 와인은 단 하나도 없었다.

리벡스 파워 100은 매년 와인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브랜드의 순위다. 가격 상승률은 물론 거래량과 함께 와이너리별로 거래되는 와인의 종류나 빈티지의 다양성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다.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부르고뉴다. 1위는 물론 지역별로도 톱 10, 톱 100 모두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했다. 생산량이 많지 않기로 유명한 부르고뉴임에도 거래량이 늘고, 가격은 크게 뛰게 이유다.

2018~2019년 사이에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던 부르고뉴 와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급등했다. 2018년에는 거래된 부르고뉴 와인이 829개에 불과했다면 2022년에는 1859개로 크게 늘었다.

르로이(Leroy)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2위 아르노 라쇼(Arnoux-Lachaux) ▲3위 르플레브(Leflaive) ▲4위 아르망 루소(Arm

and Rousseau) ▲5위 프리에르 로크(Prieure Roch) 등도 모두 부르고뉴 와인이다.

특히 아르노 라쇼는 이전에도 떠오르는 스타였지만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평균 가격 상승률은 487.2%지만 일부 와인은 무려 1000%나 가격이 급등했다.

보르도는 부르고뉴와 명암이 엇갈렸다.

샤또 라피트 로칠드와 샤또 무통 로칠드, 샤또 마고 등 1등급 5대 샤토라는 곳들도 모두 밀려났다. 2017년엔 보르도만 53곳으로 리벡스 파워 100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 25곳으로 반토막이 났고, 사상 처음으로 톱 10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샤또 라피트 로칠드는 여전히 거래액이나 거래량 기준으로는 상위에 올랐다.

돔페리농과 루이 로드레, 크룩 등 샴페인의 인기도 두드러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게 바로 샴페인으로 부르고뉴의 후발주자를 꼽으려면 단연 샴페인이다.

리벡스는 “상위 100위 안에 든 고급와인들의 가격은 올해 모두 올랐다”며 “부르고뉴 와인의 상승세는 인상적이지만 하늘 높이 날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수록 구매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총체적 브랜드 관리가 필요한 이유

기업의 주인이 바뀌거나 사라져도 브랜드는 남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 자산인 브랜드는 시장에서 화폐 가치로 측정·거래된다. 오토밀로 유명한 웨이커의 공동 창업자 존 스튜어트는 “만약 우리 회사가 분해된다면 나는 공장과 설비를 내주더라도 브랜드를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많은 경영자들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브랜드 관리’에 대한 인식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를 하거나 까칠한 언론을 상대하는 일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브랜드’는 1991년 선경그룹 홍보실에 카피라이터로 입사한 이후 줄곧 브랜드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아온 SK그룹 노찬규 부사장이 브랜드 관리 방법론을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과거 선경, 유공, 한국이동통신으로 나뉘어 있던 그룹의 사명 체계를 SK로 통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책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복잡한 조직 구성과 이들 사이의 역학 관계 등으로 인해 브랜드 관리가 분절되고 단절된 상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성공적인 브랜드, 또는 평판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 결정이 마케팅 따로, 홍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부서 따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총체적 브랜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브랜드가 한 기업 안에 존재하게 되면



결국! 브랜드

노찬규 지음/조선뉴스프레스

이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즉, 한 기업 내 ‘브랜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브랜드 체계는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관리 최적화를 위해 브랜드의 수평·수직적 구조를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브랜드의 역할(수평)과 위계(수직) 관계를 정리하면, 기업 내 존재하는 복수의 브랜드 상호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돼 브랜드 자산이 강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브랜드 관리 개념부터 아이덴티티 정립, 광고, PR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SK맨’의 32년 현장 경험을 담은 신개념 브랜드 이론서.

236쪽,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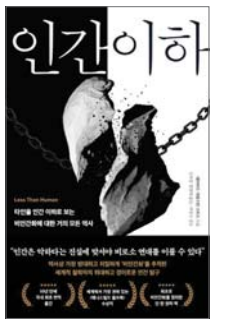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

인간 이하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 지음/김재경, 장영재 옮김/웨일북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곤 한다. 과거 나치는 유대인을 지구상에 박멸해야 하는 기생충으로 여겼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부족민들을 인간 동물원에 전시했다. 이런 잔혹한 행위는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국민은 개돼지다”, “맘충, 벌레 취급받는 모성애” 등 SNS나 뉴스 헤드라인에서 우리는 동물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인간 이하’로 취급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저자는 어떤 인간이 더 우월한가를 놓고 다투기 보다는 함께 인간의 민낯을 마주하고,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인간화에 대한 역사를 집대성한 책.



440쪽, 2만2000원.

마음의 병에 걸리는 아이들

미즈노 마사후미 지음/송지현 옮김/시프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정신질환은 ‘아무나 걸리지 않는 특수한 병’이 아니고, ‘마음이 약해져 생긴 병’도 아니다. 누구나 뇌의 구조나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정신질환은 주변에 흔한데 사람들은 병원에 가길 꺼린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서다. 저자는 “정신질환은 근성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말한다. 암을 조기에 진단받으면 몸

에 부담이 덜 가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고 완치될 확률이 높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



160쪽, 1만4500원.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김동춘 지음/세계적

출생률은 낮고 자살률과 산재율이 높은 나라는 대체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국가다. 소득 상위 0.1%가 최하위의 1000배를 벌고, 자산 상위 1%가 국가 총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깊고 넓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정규직 안에서도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토지와 건물 소유 여부에 따른 자

산 불평등도 상당하며, 학력도 소득 격차를 벌린다. 이러한 불평등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내팽개친 오늘의 자본주의는 이제 국가와 민간의 부채 위에서 ‘시간 벌기’나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지적한다. 424쪽, 2만원. /김현정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특수본,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용산시장 등 4명 구속영장 /사진 뉴스스
▲ ‘감기약 수급동향 점검’ 복지부·식약처 등 협의체 가동

▲ 지적장애 이모 폭행치사 혐의 30대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
▲ 檢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인 두고 딸·동생 갈등…대법 판단 받는다
▲ 이재용에 계란 던진 방송인 ‘횡설수설’…“李 보다 생활비 중요” /사진 뉴스스



GATE2 입구에 조성된 소나무



물개 테마의 놀이터.



달나라 테마의 놀이터.

/김대환 기자

“다양한 테마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추억 쌓아요”

아파트의 미학(美學)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최근 찾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지난 10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광명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광일초등학교와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해 보였다.

광명뉴타운 15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12개동, 총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36㎡ ▲49㎡ ▲59㎡ ▲84㎡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푸르지오’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새 아파트에 걸맞게 깔

GATE2 입구에 소나무 등 설치 남향 위주… 채광·통풍 극대화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 적용 주차장 없앤 공원형 아파트 건폐율 15.63%… 동간 거리 넓혀

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다. 게이트1(GATE1) 입구에는 소나무 숲을 느낄 수 있는 ‘힐링포레스트’가 조성돼 있었다. GATE2 입구에 위치한 소나무와 석가산은 품격 있는 경관을 뽐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4베이(Bay)와 1~2인 가구를 위한 윈스톱 특화 공간 2Bay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아파

트로 꾸며졌다.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세대 진입이 가능하며, 세대 당 1.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고려한 보행로도도 설치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폐율이 15.63%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넓혀 단지 쾌적성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면서 “입주민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 광장과 테마 쉼터 등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팽나무와 놀이 공간 등이 설치된 ‘케렌시아 가든’을 비롯해 지상층에는 정원와 티하우스 등이 조성됐다.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등이 조성돼 있었다. 이

밖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독서실, 시니어클럽도 마련돼 있다.

단지에는 물개와 달나라, 숲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물개 테마의 놀이터에는 수경시설이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는 등 ‘수생비오톱’이 조성됐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에겐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26일 광명 제15R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 어린이집 시설 인수,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숲 테마의 놀이터



단지 내 조성된 ‘수생 비오톱’



GATE1 입구에 조성된 ‘힐링포레스트’



▲환호성 꺼뜨린 총성… ‘탈락’ 환호 이란男, 군경 총에 사망
▲바이든, 보스턴에서 엠틀리엄 부부 만난 /사진 뉴시스

▲KDI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국제 시장 혼란 가능성”
▲‘9·11 테러 주범’ 빈 라덴 아들 “나 역시 아버지의 희생자”



▲FTX 붕괴 여파로 11월 암호화폐 펀드서 26조원 유출 /사진 뉴시스
▲설리번 美안보보좌관 “IRA, 한미 원전토록 논의…핵확장 억제력 강화”



[라이프]
대웅제약
36호 신약 탄생
2년 연속 개발성공
L2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내 몸에 안전하게, 내 피부에 산뜻하게 여성건강까지 책임지는 '360도 케어'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라엘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세 명의 여성이 설립한 '우먼 웰니스' 브랜드
미국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부문서 1위 기록
'라엘 밸런스' 론칭...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여성용품부터 이너케어까지 여성 건강에 도움

'우먼 웰니스'를 지향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기농 여성용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

2017년 한인 여성 세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한 브랜드 '라엘(Rael)'이다. 디즈니 영화사 배급팀 디렉터 출신 백양희, 베스트셀러 작가 아네스 안, 제품 디자이너 원빈나 등 세 명의 CEO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용품을 만들기 위해 유기농 라엘을 설립했다.

라엘의 대표 제품은 전 세계에서 1초에 6개씩 판매(2021년 라엘 글로벌 연간리포트 기준)되는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다. 미국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카테고리에서 1위(2021년12월14 기준)를 기록했으며 더 나은 제품을 위해 소비자 후기를 바탕으로 6번의 리뉴얼을 거쳤다.

이미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라엘 생리대는 하루에 47만장씩 판매되고 있다. 올 1월 아마존 누적 후기만 21만1543개를 돌파했고, 아마존과 네이버 스토어에서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하며 소비자 만족도도 매우 높다.

민감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과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다. 국제 유기농 인증인 'OCS(Organic Content Standard) 블렌디드' 인증을 받은 100% 유기농 순면 탐시트를 사용해 편안함과 산뜻함을 제공한다. 또, 환경과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 표백 공법인 완전 무염소 표백 공법(TCF)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스위스 인증기관인 SGS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불검출 인증을 받았으며, 독일 피부 과학 연구소 더마테스트(Dermatest) 피부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획득했다. 알러지 유발물질 26종 테

스트도 완료해 화학성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리혈을 빠르게 흡수 및 확산시키는 '순간 흡수층', 뛰어난 흡입력으로 확실하게 생리혈을 흡수하는 '과외 흡수층', 역샘방지를 위한 강력 흡수시트인 '천연 셀룰로오스 흡수층'으로 보송함과 산뜻함을 유지한다. 또,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통기성 백시트로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좌우의 안심 샘 방지 가드는 양이 많은 날에도 샘 걱정 없이 활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

라엘은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에 입점해 있다. 특히 2030 여성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올리브영에 입점해 활발하게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623개 올리브영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라엘 생리대를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는데,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중형·대형)를 20%, '유기농 순면 커버 입는 오버나이트'(미디엄 4매)를 34%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오는 13일까지 올영픽 연계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해 5000원 이상 구매 시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중형 체형팩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라엘은 올해 웰스케어 브랜드 '라엘 밸런스(Rael Balance)'를 론칭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라엘 밸런스'는 여성들이 자주 겪는 질환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3종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라엘 밸런스 월경케어 보라지유 ▲라엘 밸런스 요로건강 크랜베리로 구성했다.

지금까지 피부에 닿는 제품을 통해 페미닌케어, 스킨케어로 여성들의 고민 해결에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이너케어까지 실천하며 건강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360도 케어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2018년에는 클린&비건뷰티 브랜드 '리얼라엘(Real Rael)'을 론칭, 단순 뷰티 제품을 넘어 생리 기간 전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라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라엘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원빈나 대표이사는 "라엘 밸런스는 건강에 관심이 높고 소재와 품질에 민감한 한국 여성 소비자의 수요와 눈높이를 반영해 탄생한 브랜드"라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부터 이너케어 제품까지 여성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라엘 밸런스 제품 라인업



▲라엘 생리대 및 이너케어 제품 /라엘코리아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10명 퇴장 심판·경고 누적 포르투갈...韓에 호재?
▲류현진 '옛 스승' 매팅리와 토론토서 7년만에 재결합 /사진 뉴시스

▲前 EPL 선수 "가나전에서 벤투 태도 에도 문제 있었다"
▲'튀니지전 패' 프랑스, FIFA에 골 취소 이의제기



▲잉글랜드 화이트, 개인사정으로 월드 컵 중도 하차
▲韓 16강 진출하면 FIFA로부터 169억 원 배당금 받는다 /사진 뉴시스